



서울대 同窓會 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1년 8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81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金在淳/편집인 孫一根/편집주간 李世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좌로부터 한국관광연구원 金大觀책임연구원, 한국관광공사 林炯澤과장, 스카이어행사 玄永旭사장, 한겨레신문 스포츠레저부 崔星民부장, 타임머신 세계여행 崔章容사장.
<커버스토리 6~7면>

인생은 긴 旅路, 여행을 떠남시다!

관악춘추

잘 나가던 서울시의 한 40대 국장급 공무원이 어느 날 홀연히 휴직원을 내고 전 재산을 처분해 마련한 1억원으로 세계여행에 나섰다. 부인과 아들 둘, 처조카, 이렇게 5명이 배낭을 메고 꼭 1년 동안 세계 6대 주의 45개국, 2백여 도시를 돌아다녔다고 한다. 하루 평균 20km를 걸어 각자 모두 신발 3켤레씩이 닳았고, 하루 두끼를 먹는 날이 보통이었으며, 이탈리아·탄자니아에서는 도난사고와 소매치기를 당하는 등 고생도 많았다고 한다.

여행을 다녀온 후 그 공무원은 『시간이나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을 얻었다』면서 『여행을 통해 고갈된 머릿속의 샘에 다시 물이 차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애들도 여행 1년만에 서너 살씩은 더 성숙해진 것 같다고도 했다.

신문에 크게 보도된 이 공무원의 색다른 배낭여행 얘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나도 한번 그런 여행을 해봐

으면 하는 충동을 느낄 것이다.

여행이란 확실히 좋은 것이다. 매일 되풀이되는 일상사를 떠나 색다른 풍물과 삶을 접하는 기쁨과 자극이 있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과 발상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그곳이 풍광 좋은 휴양지라면 등산·낚시·온천욕 등 평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건강·취미생활까지 만끽할 수 있으니 여행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더욱 커진다.

여행 덕에 더 성숙해지길...

그렇지만 여행은 이처럼 즐기고 쉬는 것만이 아니다. 여행보다 더 인간을 단련시키고 의식과 사고를 개발·성숙시키는 일도 아마 찾기 어려울 것이다. 옛날부터 『여행은 인간을 똑똑하게 만든다』거나 『귀한 자식일수록 여행을 시켜라』는 말이 내려온다. 사실이 그렇다. 배낭여행을 다녀온 그 공무원도 『...머릿

속의 샘에 다시 물이 차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지 않은가.

이처럼 여행을 통해 배우고, 자극 받고, 다른 발상법을 알게되고, 자기 일상사를 되돌아보게 된다. 얼마나 배우고 단련 받느냐 하는 것은 여행하는 각자의 그릇과 여행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누구라도 여행을 한다는 것은 평소 몸담고 있으면서도 잘 못보던 「숲」을 잠시 떠나 그 숲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계기를 갖는 효과가 있다. 며칠 휴가라도 다녀와 보면 늘 보던 자기 집, 직장이라도 왠지 좀 다른 느낌과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경험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지금 한창 휴가철, 방학철이다.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날 것이다. 올해 따라 유난히 우리 주변엔 갈등도 많고, 짜증도 많다.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온 많은 사람이 여행 덕에 더 똑똑해지고 성숙해져 여름이 끝나면서 전체 사회분위기도 한결 밝아지길 기대해본다. (赫)



『최근 중국에 가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 보았느냐고 묻는다.

이즈음 중국의 혁명적인 발전과 「광속에 가까운 변화」의 모습을 아느냐는 물음이 깔려 있다.

요즘 갑자기 중국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이제 중국은 펄벌의 「대지」나 「붉은 옥수수」의 나라가 아니라 거보로 속보하는 거인이자 기회의 대륙으로 떠오르는데 따른 바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수 기대와 꿈이 가미되어 열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곧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 예정되어 있는 데다 최근 하계 올림픽까지 유치했다. 인구 13억의 거대 시장이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이고,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SOC확충과 인프라 구축 열기에 따라 각종 물자와 기술이 밀물져 들어가고 건설경기로 복적거릴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중국은 3번째의 「혁명」인 자본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모택동의 공산주의 혁명과 등소평의 실용주의 혁신에 이어 지금 자본주의 혁명이 한창 진행중이다.

陳 稔부총리까지도 한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토로했을 정도로 중국의 자본주의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경제대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와 불황에 학학거리고 있는 데도 중국만은 두자리 숫자에 가까운 성장행진

을 구가하고 있다.

미국마저도 두렵고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그 같은 중국을 이웃하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이점이 우리를 특수 기대에 들뜨게 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우리가 설레임으로 들뜨기에 앞서 중국을 바로 보고 변화실체를 냉정하게 읽어야 할 것이다. 막연한 기대는 환상일 수 있다. 어쭙잡게 김치국부터 마시고 주판알 굴리는 꼴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벌써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값싸고 형편없는 물건이나 만들어 파는 나라가 아니다. 1차 생산품은 우리 시장을 휩쓸고 있다. 많은 부문의 기술은 우리보다 앞섰고 일부 IT나 전자제품은 우리를 추월한 지 오래다. 북한을 지렛대로 한 안보의 교나 통상의교에서도 우리는 판관이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강한 힘을 바탕으로 더욱 공격적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을 벤치마킹하던 중국이었으나

이제는 한국이 한 수 배워야할 때가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자칫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할지도 몰라 그것이 두렵다.

중국은 우리의 우호적인 동반자인가 아니면 우월적인 경쟁자인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먼저 찾고 좌표설정이 앞서야 할 때라고 본다.

(본보 논설위원)

중국에 가 보셨습니까



金 鎮 銅
서울경제신문 주필

동 문 칼 럼

영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해야 한다

영어가 국제어인 지금, 영미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첩경은 영어를 통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선견지명과 국익차원에서 한국어를 제1공용어, 영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이미 1948년 10월 9일, 법률 제6호로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한자(중국의 簡體字가 아닌 한국 한자) 사용도 가능하다. 여기에 영어를 제2공용어로 지정하면 된다. 필자가 말하는 영어는 꼭 정통 영국영어 또는 영문학적 영어가 아니라도 좋고 인터넷 시대에 세계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영어면 된다.

공용어는 공용문서에 쓰는 언어이다. 우리는 한글(필요시 한자)로 표시된 한국어가 공용어였고 그 밖의 어떤 국제어도 써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제2공용어로 영어를 지정하면 공용문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써야 하므로 제2공용어를 배우고 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어 교육은 종전대로 하되 민족의 현대어 발전 차원에서 더욱 강화해야 하고 영어 교육은 그 동안 해왔지만 주로 읽고 쓰는 수험 영어에서 대화하는 영어로 전환해야 한다. 공용어이므로 교육 대상을 종전의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유치원아, 초등학생 및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수업시간 편성도 다른 여러 과목 중의 하나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수업이 끝난 후에 English Immersion Class(가칭)에서 선생님과 학생이 영어 속에만 보내도록 한다. 종래의 학교 영어 교육이 불만스럽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영어시간에만 영어를 조금 읽고 쓰는 교육이었고 그 이외의 시간은 한국어 속에 생활하니까 영어가 발전이 안되었다. 영어생활 시간을 대폭 확장하여 영어구사를 더 자유롭게 해야 한다.

교육이민도 영어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과중한 부담으로 자녀 교육을 해왔자 국제어

인 영어 하나 제대로 못하니 교육이민이 증가한다. Immersion이란 「물에 흠뻑 빠지게 한다」는 뜻이다. 교실 분위기를 영어 일색으로 하고 그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어 속에 생활하도록 한다. 영어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법을 선생에게 강습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도 이민가는 효과를 얻도록 한다.

외국어 교육에서 Immersion Class를 운영하는 예는 외국(미국, 일본)에도 있고 우리 나라에도 그런 동향이 있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혹자는 제2공용어를 지정하면 제1공용어 교육이 위축된다고 염려한다. 처음 잠깐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bilingual 교육을 하는 나라의 경우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캐나다, 싱가포르 등의 예를 보면 bilingual 교육이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니라 보완 相長의이다. 제2공용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하루빨리 어문교육을 인터넷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제1공용어 교육만을 강화한다고 해도 국민 다수가 우리의 고전이나 전통문화를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렇게 고집하다가 세계 속에서 낙오 국민이 될 것이므로 전통문화의 발전은 전문가에게 맡겨서 국민을 교화하

도록 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국익 차원에서 영어 제2공용어 정책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후세가 globalization 시대에서 유리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른들이 길을 터놓아야 한다.



崔 相 定
(56년 文理大卒)
前한국번역가협회 감사

꼭 정통 영국영어
또는 영문학적 영어가
아니라도 좋고 인터넷
시대에 세계인들과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영어면 된다.
우리의 후세가
globalization 시대에서
유리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어른들이 길을
터놓아야 한다.

주 요 목 차

서울대 가족3면
金萬龍 한국외대 정책과학대학장
건강을 지킵시다5면
金太坤 건강이 열리는 약국 대표약사
추억의 창5면
林瑯圭 동위원소 교육연구원장
동문을 찾아서8면
高錫九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화제의 동문9면
朴琬信 문화전문MC 겸 리포터
지부순례10면
영국 런던 지부
기·과 순례10면
사회교육과 동창회
동문기업 탐방11면
유진사이언스

서울대 개혁은 서울대에 맡겨야14면
愼鏞廈 모교 사회학과 교수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15면
劉純信(鄭世赫동문 부인)
박성희 문화산책15면
팀, 도대체 언제 얼마나 쥐야 하나
SNUA OPINION LEADER18면
李振洙 국립암센터 병원장



한국외국어대 金寓龍정책과학대학원장

남동생·아들·조카·동서 등 9명이 동문 방송·교육·사업·의료분야서 고루 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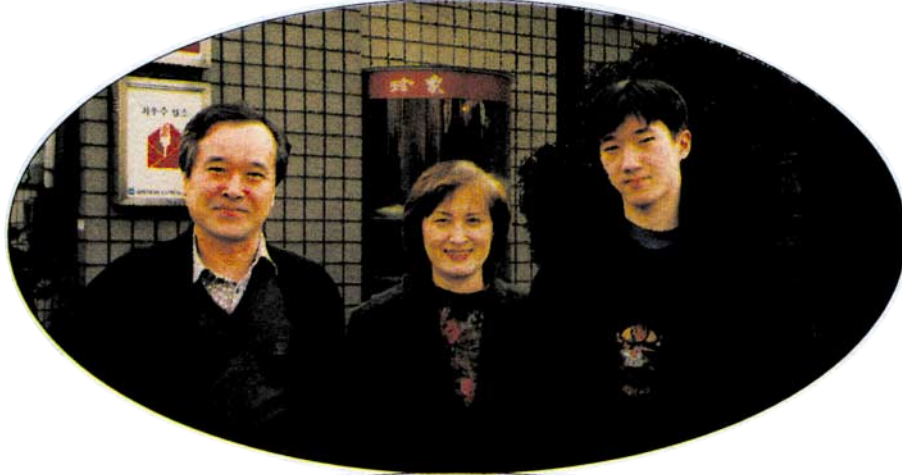
흔히들 형제보다 가깝게 지내는 사이를 부부사이라 하지만, 자칭 「동서들의 모임」을 따로 만들 정도로 동서지간에 관계가 돈독하며,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어김없이 연락하는, 형제보다 진한(?) 우의를 다지는 가족이 있다. 마스크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金寓龍(73년 新大院卒·한국외대 정책과학대학원장)동문 가족이 바로 그들이다.

특히 처형 李美娜(62년 醫大卒·삼성 제일병원 소아과 의사)동문의 남편인 큰 동서 池堤根(64년 大學院卒·모교 의대 병리학교실 교수·대한의학회장)동문, 작은 동서 李祥求(68년 法大卒)동문이 모교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더욱 서로 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金동문은 池堤根동문에 대해 『남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언행과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는 분위기에 맞춰 와인 한 잔과 멋진 노래를 부를 줄 아는 로맨티스트』라며 『그러나 자연스레 그 자녀와 사위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법대를 졸업했지만, 전공과는 다소 무관하게 극동정유(現현대정유)와 한국마이크로(유통업체)에서 오랫동안 봉직하다 최근 인터넷 비즈니스 사업에 뛰어든 李祥求동문 역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의할 것이 있으면 무조건 연락하는 사이가 된지 이미 오래다. 그래서인지 생일에는 반드시 두 번의 모임을 갖는데, 하나는 가족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서들만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MBC에서 16년간 봉직해오며 PD, 영화부장, 편성기획부장, 심의위원, 제작위원 등을 두루 거친 金동문은 당시 압울하고 자유롭지 못한 언론상황에 대해 점점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보다



金寓龍동문 부부, 金海英동문(사진 上), 金昌旭·金寓龍·金寓光동문(사진 下)

는 대학에서 후학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때마침 1970년 우리 나라 최초로 마스크 관련 분야를 독립된 학문으로 채택하여 신문대학원을 설립한 모교에 지원, 쟁쟁한 경쟁자들을 뚫고 1기생으로 입학했다. 미국 유학시절을 거쳐 본격적으로 강단에 서게 된 金동문은 당시 월급이 방송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론과 실무 즉, 교단과 방송현장을 동시에 경험해본 행운

아라고.

금강기획 AD인 장남 金海旭씨의 영향을 받아 차남 金海英(01년 農生大卒)동문 역시 언론이나 광고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남동생 金寓光(46기 ACAD·SBS 콘텐츠사업본부장)동문 역시 방송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인물. 학창시절 극예술회장을 지냈으며, 군대시절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영화 제작에 흠뻑 빠지기도 했다. 대학 졸업 후 TBC(현 KBS2) PD

에 합격, 이후 KBS, MBC, SBS 3社를 모두 섭렵했다.

또한 가족 중 매제는 SBS 사회부에서, 큰누나의 장남은 SBS 프로덕션에서 전문 카메라맨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차남은 뮤직 채널 「V」에서 자신의 재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언뜻 보면 가족내력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많은 이유는 다분히 金寓龍동문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동생은 물론 조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며 진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해준 까닭에 모두 언론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金동문이 이렇듯 친척들에게까지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는 이유는 따로 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을 오게 된 金동문은 성장하면서 독립심과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가족과 헤어지는 바람에 유대감과 어우러짐을 많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형제들의 자녀까지 챙기게 되었다고.

한편 金寓龍동문의 조카 중에는 마스크과는 다소 관련이 없는 비주류(?)분야에서도 빛을 발하며 활동하고 있는 동문도 있다. 남동생(金寓光)의 막내아들 金昌旭(치대 4년)군은 모교 자연대 화학과에 입학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치대에 재도전하여 합격한 케이스다. 졸업 후 치과를 개업하는 것보다는 구강악안면외과 분야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타지에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정을 꾸리고 있는 큰 동서(池堤根)의 딸내외(池容承·91년 家政大卒·뉴저지 Textile 연구소 연구원, 李京珍·90년 社會大卒·포항제철 미국지사 근무) 역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송인으로서 또한 교수로서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 볼 때, 아쉬운 점도 많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金동문은 『향후 세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베스트셀러를 집필하는 것이 마지막 꿈이며, 가진 것은 없어도 이웃에게 자그마한 정성을 베풀 줄 아는 진정한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表)

뉴욕지부

새 회장에 韓昌燮동문 선출

뉴욕지부동창회(회장 崔澈容)는 지난 6월 16일 브롱스 Pelham골프장에서 춘계골프대회 겸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골프대회는 각 단과대학 대항전으로 진행됐는데 24명이 참가한 공과대학동창회가 참가자 수나 성적으로 보나 단연 뛰어나 영예의 총동창회장배를 차지했다.

이어 임원개선을 통해 제23대 회장에 韓昌燮(62년 文理大卒)



수석부회장(사진)을 선출했다. 한편 이날 새 이사장에 秋載玉(63년 醫大卒)동문을 추대했다.

워싱턴DC 지부

8월 25일 曹秀美초청 음악회

워싱턴DC지부동창회(회장 文成吉)는 지난 3월 3일 개최하려다 曹秀美(81년 音大入)동문의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됐던 「조수미 초청 음악회」를 오는 8월 25일 오후 8시 George Mason 대학교 콘서트홀에서 가질 예정이다.

음악회 준비위원장인 文희장은 『美주류사회와 한인동포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음악회

를 曹동문이 단합하여 멋지게 진행함으로써 동창회 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세계적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曹秀美동문은 지난 해 발매한 크로스오버 CD 「Only Love」가 80만매나 팔리는 등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으며, 현재 새 앨범 「Prayers」를 발매,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부

제3대 회장에 李在新동문 선임

뉴잉글랜드지부동창회(회장 姜慶植)는 지난 6월 17일 보스턴 인근 렉싱턴에 있는 Peking Garden 식당에서 이사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임 회장에 李在新(62년 工大卒)수석부회장(사진)을 선출하고, 수석부 회장에 鄭正旭(66년 醫大卒)동



문을 선임했다.

필라델피아 지부

신임 회장에 姜英培동문 추대

필라델피아지부동창회(회장 李惠媛)는 지난 6월 23일 필라델피아 근교 늘봄 식당에서 한 회기를 마감하는 이사회와 친구 임원 이·취임식을 가졌다.

부부동반으로 개최된 이날 이사회는 신임 회장에 선출된 姜英培(63년 獸醫大卒)동문(사진)과 부회장에 선임된 金溶植(70년 藥大卒)동문의 인사소개에 이어 韓秀雄(61년 醫大卒)동



문의 중국탐방 Slide Show로 진행됐다.

(變)

“음악과 함께 삶의 여유를 찾아봅시다”

제6회 서울대 동문 교향악단 연주회

9월 10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1989년 제1회 연주회를 시작한 서울대 동문교향악단이 올해로 제6회 연주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차이코프스키의 밤」을 주제로 鄭致溶(83년 音大卒)동문이 지휘를 맡고, 崔載援(96년 音大卒)동문이 바이올린 협연을 합니다. 아름다운 화음과 함께 동문이 하나되는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상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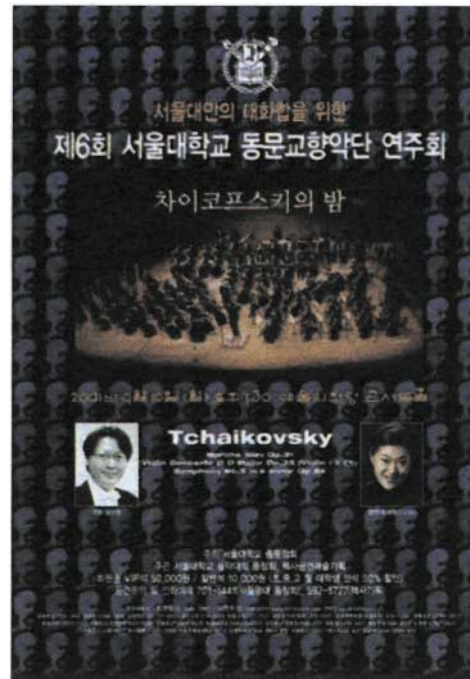
차이코프스키
슬라브 행진곡 op. 31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 35
교향곡 5번 e단조 op. 64

▲지휘: 鄭致溶

▲악장: 金 旻

▲협연: 崔載援

주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주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동창회,
핵사공연예술기획



공연문의 및 전화예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동창회 (전화: 701-1441)
회원권: VIP석 50,000원 / 일반석 10,000원 (초·중·고 및 대학생 전석 50% 할인)
예매처: 티켓링크 1588-7890 / 티켓파크 538-3200 www.ticketpark.com 천리안: go ticketpark
교보문고 736-1444, 영풍문고 399-5616, 삼성카드(주) 727-8451, 을지서적 774-2209, 태평서적 777-7551, 대한음악사(명동) 776-0577, 신세계백화점(영등포점) 676-1234, 영등포문고 780-9023, 동화서적 3420-2111, 서울문고(무역센터) 553-3080, 진술문고 3446-2525, 타워레코드 3481-0460/3, 교민문고(천호점) 488-2151, 세종문고 419-4471, 좋은인상 889-8792, 노원문고 951-0633, 세종문고 419-4471, 한가람문고 535-1600, 구로우체국 854-0014, 양천우체국 646-0014, 분당 서울문고 0342-781-3038, 일산 정글북 0344-9105-810.

미술작품 姜玉京作



「외면, 또 다른 내포 WORK 01-21」, 스테인레스 스틸, 아크릴, 에폭시 40×24×50cm, 2001.

〈작가약력〉

- △ 79년 모교 미대 조소과 졸업
- △ 81년 모교 대학원 졸업
- △ 82~2000년 서울조각회전
- △ 91~2000년 낙우조각회전
- △ 92년 한국현대조각초대전, 낙우조각회 젊은 작가전
- △ 92~2001년 개인전 4회
- △ 93년 한국미술 2000년대의 도전전
- △ 95년 의식의 확산전
- △ 99년 나주국제미술제
- △ 2000년 새천년 대한민국의 희망전, 분당미술제
- △ 2001년 한국여류조각가회 사랑전
- △ 현재 서울대 강사

10월 21일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

동문 여러분을 모교로 초대합니다

서울대인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제23회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가 오는 10월 21일 거행됩니다.

모교를 방문하여 그 동안 잊고 지내던 옛 동문들과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등산대회에서는 참가하신 동문가족에게 창작국악의 거봉 黃秉翼(59년 法大卒)동문의 가야금 연주곡이 담긴 기념CD를 드릴 예정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 시: 2001년 10월 21일 (日) 오전 9시

집합장소: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

참가대상: 동문 및 동문가족

참가비용: 없음

제공물품: 도시락, 식음료, 기념품 등

경 품: 다량의 선물 추천

문의전화: (02) 702-2233

건강을 지킵시다

운동이 체중조절의 지름길

인간의 잠재된 욕망을 일깨우려고 TV나 신문에서 늘씬하고 예쁜 여인을 내세워 아주 쉽고 빠른 시간에 마음껏 먹고, 체중감량이나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 준다는 현혹된 광고가 범람하는 것을 보거나, 약국에 와서 『살 빼는 약 없나』고 묻는 것을 보니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비만이나 과체중이란 자기체중이 표준체중「(키-100)×1(남성 1, 여성 0.9)」에서 20~30%를 초과한 경우에 지칭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신체조직, 즉 장기나 근육층에 지방이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적절한 지방의 유지는 피부를 윤곽하게 하고 성호르몬의 생성을 도와 성생활에도 적합한 리듬을 주기도 한다. 또 체질량지수법(Body Mass Index)으로 자신의 체중(kg)을 키(m)의 제곱수로 나누어 나타난 지수가 23~29.9이면 과체중자이며, 30이상이면 비만으로 판정하기도 한다.

대체로 비만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많고, 특히 미국에서는 백인보다 흑인이 많다. 95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체질량지수법으로 25이상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20% 정도인 6백60만명으로 단연 여성이 우위에 있었으니, 6년이 지난 지금에야 더욱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미국 전염병학회誌의 논문자료에 의하면 비만자의 72%에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만자의 체중을 줄이면 사망률이 20%이상 감소, 비만관련 암도 50%이상 감소하고, 당뇨병자의 사망률도 40%이상 감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신의 체중을 1개월에 2kg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분해



金太坤(75년 藥大卒)

건강이 열리는 약국 대표약사

열량계산으로 하루에 500칼로리를 적게 섭취해야하므로, 밥 두 공기분을 줄여야 하는 교육책이 따라야 자신의 체중을 3개월에 6kg을 줄일 수 있으니, 이것도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약물요법이 필요하며 1일 30분 이상의 땀이 날 정도의 운동과 건강식품인 식이섬유소(곡물 껍질류)가 추천되는데, 식전 1시간에 섬유소를 섭취하여 식사량을 25%정도 감량하면 체중을 조절할 수 있다. 약물요법으로는 최근 FDA에서 승인되고 관심이 고조된 전문의약품 제니칼이 있으며, 이는 췌장, 십이지장에서 지방분해효소(Lipase)의 작용을 억제시켜 체내로 흡수를 방해하고 지방을 대변으로 약 20~32% 배설시키므로 지방식을 할 때 음식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식후 1시간 내에 복용, 1일 3회 1정씩 3개월 정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보험 급여로 처리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어도 모두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하는 고가이므로 아직도 일반화하기에는 요원한 편이며, 운동만이 비만을 조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

(연락처 : 031-485-9345)

추억의窓

미군 부대에서 나온 통조림은 일품요리
기숙사의 전기 끌어쓰다 들통나기도

林瑤圭(56년 工大卒)동위원소 교육연구원장

우리 시대에 겪은 대학생활은 어렵고도 고생스러웠다. 전쟁으로 인해 부산 전시연합대학 시절을 거쳐 서울에 와서도 제기동에 있는 사대부고를 임시교사로 사용하다 공릉동 공과대학으로 옮겨왔다.

필자의 학창시절은 기숙사 생활과 인연이 깊다. 일제시대였던 중학교(대전중) 때는 상급생들을 모시고(?) 군대식 기숙사 생활을 했다. 이후 대학 1학년이 되어 부산 대신동에 있는 공대 임시 가건물에서 수업을 받았는데, 학교 측의 배려로 과정동에 판자로 된 가건물을 지어 기숙사로 사용했다. 1~2학년 때는 한 방에 2~3명씩 배정받아 40여 명이 함께 지낸 것으로 기억한다.

기숙사에서 학교까지는 도보로 통학을 했었다. 식사는 반찬 한두 가지와 생선(아지)국을 멀쩡게 끓여 먹었는데, 비린내가 나서 먹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런 이유로 어쩌다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햄 통조림으로 국을 끓여 먹을 때는 그 맛이 가히 일품이었다. 간혹 찾아가는 다대포와 감포 해변가는 젊은이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장소였다.

서울에 올라와서도 공대 4호관을 기숙사로 사용했었는데, 그 곳에서 1년간 생활을 했다. 기숙사라고 해야 텅 빈 실험실에 군용 간이침대와 미군이 버리고 간 합판을 적당히 톱질해서 만든 책상이 전부였다. 주로 3학년생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한방에 4명씩 배치

되어 70여 명이 같이 생활했으며 식사는 공대 본관에 마련된 학생용 식당을 이용했다. 낮에는 기숙사 앞 미군 공병대의 나무 키는 소리에 신경이 쓰였고, 달뜨는 여름밤에는 시원히 뿜린 교정에 나와 달빛을 바라보며 한 곡조 키티 박재희동문의 바이올린 솜씨, 특히 낭만과 애수에 어린 사라사하데의 『지프이네루바이진』 곡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4학년 때는 취직공부를 하기 위해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은 기숙사 뒤에 있는 언덕 넘어 한적한 농촌에 위치해 있어 전기가 없는 곳이었다. 하숙방 호롱불 밑으로 책을 읽다 보면 가장 아쉬운 것이 전깃불이었다. 어느 날 야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척의 거리에 있는 기숙사의 전깃불 생각에 전기를 끌어들이고 싶은 유혹이 생겼다.

우선 미군이 남겨두고 간 전화선을 거둬 기숙사에서 보이지 않게 묻어 하숙집까지 선을 연결시켰다. 전깃불을 처음 켜는 순간 광명의 세상이 찾아 들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유난히 밝은 창에 의심이 간 동리 사람들의 소문으로 들통이 나버렸고, 학생처장에게 불러다니며 징계대상으로 찍혔으나 운 좋게 용서되었다. 또한 4학년 때는 현장실습을 다녔다. 청평, 화전, 당인리 등의 발전소가 그 대상이었고, 대한전선에도 들러 전선 만드는 과정을 실습 받았는데, 아래 사진은 당시 그곳 직원들과 찍은 것이다.

졸업 후 취직자리를 찾던 차에 운 좋게 원자력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유학을 가게 되었고, 이때 전공을 전기공학에서 원자력(방사선방호)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었다. 귀국 후 원자력연구소, 과학기술처에서 봉직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정년을 채웠다. 현재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뒷줄 좌로부터 두 번째 필자

Meet
 만나 보고
 다들 물어봐
 궁금해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여행 마니아들

휴가철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떠나지만 제대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요즘 관광수지 적자로 국내 관광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여행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을 통해 여행의 의미와 국내 관광의 문제점 및 극복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사회=朴聖姬(77년 家政大卒·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참 석 자

- 玄永旭(71년 文理大卒) 스카이어행사 사장
- 崔星民(80년 師大卒) 한겨레신문 스포츠레저부장
- 金大觀(91년 農生大卒) 한국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林炯澤(93년 社會大卒) 한국관광공사 컨벤션뷰로 과장
- 崔章容(42기 ACAD) 타임머신 세계여행 사장

사 회: 최근 관광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玄永旭: 문리과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군 제대 후 노스웨스트 항공사에 입사해 17년간 근무했습니다. 현재의 여행사를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崔章容: 96년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줄곧 관광 여행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崔星民: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겨레신문사 창간 당시부터 현재까지 스포츠레저부 여행담당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뛰는 여행기자 중 나이가 가장 많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金大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를 나와 대학원에서 휴양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미주리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곳에서 교직생활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문화관광부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관광연구원 연구1팀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주로 국제관광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을 맡고 있고 아울러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과 「IT와 관광」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林炯澤: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9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제회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엔 홍보실에 근무하면서 국내 관광업계에 대해 많이 다루었습니다.

사 회: 각자 국내 및 해외여

행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나 다녀오고 나서 느낀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崔星民: 최근에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왔습니다. 금강산의 21개 코스 중 3개 코스만 둘러봤는데, 북한 인민들에겐 접근을 금지하고 있더군요.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자연이 버린 티끌은 있어도 인간이 버린 티끌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즉 너무나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쪽은 어딜 가나 인간이 버린 티끌로 가득 차 있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林炯澤: 재학시절 울릉도에 1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낯설고, 외국과 같은 멋진 리조트 시설은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고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또 혼자 유럽을 한달 반정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사람들에게 관해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

이 많은데, 이렇게 한 달을 보내면 몸도 고단하고 시간에 쫓겨 관광을 제대로 할 수 없습나다.

경비 문제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여행길에 오르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어느 나라를 제대로 체험하려면 비용이 들더라도 그 나라 식당에서 음식도 먹고 공연도 관람하는 등 되도록 많은 것을 느껴야 올바른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玄永旭: 저도 여행을 많이 했지만, 가는 곳마다 좋았습니

품으로 키웠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곳에서만 판매하고 다른 곳에선 취급할 수 없도록 지원했다고 합니다.

金大觀: 똑같은 물건이 전국에 퍼져 있는 건 저작권 문제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동에 위치한 명품관에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은 상당한 노력과 정성을 들여 만든 것들인데 이러한 상품이 전시되면 며칠 뒤 남대문 시장에서 그 복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물건이든 순식간에 전국에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품에도 저작권을 부여해서 보호해줘야 합니다.

崔星民: 복제를 함부로 못하게 하고, 아울러 자연을 깨끗하게 하려면 외국처럼 엄벌주의로 가야 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관광지가 깨끗한 이유는 그 나라의 의식 수준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그에 앞서 엄청난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玄永旭: 의식 수준이 문제지요. 질서를 지키고 여행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 성장해야 그 나라의 수준도 올라가는 것이구요. 뉴질랜드에도 우리처럼 폭주족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의 빨간 불이 켜지면 누가 보지 않아도 정지한다고 합니다. 질서 의식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林炯澤: 국립공원에 가보면 아이를 동반한 어머니들이 나뭇가에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어른이 돼서도 자연을 함부로 다룰 것이 분명합니다.

崔星民: 섬진강가에 갔을 때 본 일입니다. 수학여행 온 초등학생 20-30명이 주변에 꽃땀 하나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곤

고창 보리밭·안면도 소나무 숲 등 우리만의 관광명소 발굴해야 한다

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TV에선 거의 매일 가볼만한 피서지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오는 장면마다 고기를 낚아 매운탕을 끓이는 등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바뀌지 않는 한, 요즘 한창 벌어지고 있는 「우리 나라부터 둘러보자」는 캠페인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金大觀: 국내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학 입학 전과 1학년을 마친 겨울 방학 때 떠난 전국일주입니다. 당시의 기억이나 경험은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좀 더 성장하면 함께 전국일주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눈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일주를 떠나기 전까지는 지방에

를 둔 부모님들께 배낭여행을 보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돌아온 아이들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좀 더 친절히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崔章容: 배낭여행 말이 나왔으니 말씀인데요. 많은 분들이 배낭여행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전여행처럼 돈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지요. 그러나 배낭여행은 패키지 여행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한 뒤,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지고 문화를 습득하고 오는 여행입니다.

따라서 배낭여행을 할 때는 하루에 많은 곳을 구경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유레일패스 하나로 밤에는 기차에서 자고, 낮 동안 구경하는 사람들

다. 물론 시설이 나쁠 수도 있고 고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와는 전혀 다른 문화인데다 그 하나 하나가 평소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어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 회: 어디를 가나 똑같은 특산물, 똑같은 음식을 팔며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이 우리 나라 관광의 현주소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林炯澤: 한동안 「1 지역 1 특산물」을 주장해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정착되지 않고 다양성이 없어진 것은 관광상품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여행객들이 특산물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 삿포로 오타루 지역에서는 원통모양의 통에 끈을 묶어 불면 소리가 나는 「오루고」라는 걸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상

우르르 몰려들어 막 대기를 들고 내리치더군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지요. 어렸을 적부터 자연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崔章容 :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언어문제, 부족한 숙박시설, 한국 생활에 대한 어려움 등입니다. 사실 유명 관광지라 할 수 있는 제주도, 한려수도, 정선 일대 등을 여행하다 보면 우리 나라 사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외국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사 회 :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올바른 여행문화를 정착시키려면 먼저 국내 관광산업을 육성시켜야 할 텐데요.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崔星民 : 뉴질랜드의 타우포호와 스위스 인터라켄에 있는 호수의 야생 조류들은 그곳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자연스레 받아먹습니다. 일본의 미즈쓰시에선 10년동안 야생 고니에게 먹이를 주다보니 많은 새들이 모여들어 급기야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경우 서산 등지에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철새 서식지를 갖고 있지만 새들이 사람을 보면 달아나 버려 접근조차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연과 친화적인 관광지가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먼저 자연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또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차별화해야 합니다. 안면도의 롯데오션캐슬을 아무리 잘 지어본들 꿈이나 사이판 해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관광명소, 예를 들어 고창 보리밭이나 안면도 소나무 숲을 개발한다면 가 아니면 각 지역의 인간문화재가 만든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한다면 외국인들을 많이 불러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소박하지만 우리 나라만이 내세울 수 있는 명소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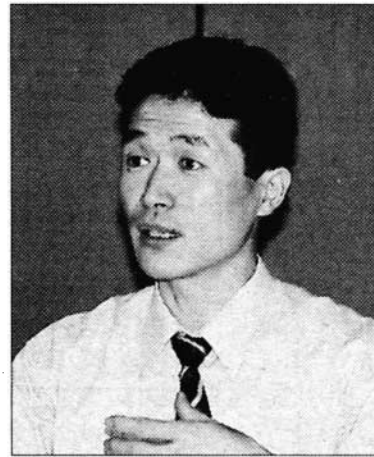
崔章容 : 작년에 가본 가평의 어느 마을은 정말 깨끗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군수가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이라도 깨끗하게 만들자고 그랬더군요. 처음 듣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자기 지역을 가꾸다 보면 누구든지 기분 좋게 그 지역을 찾게 될 것입니다.



玄永旭



崔星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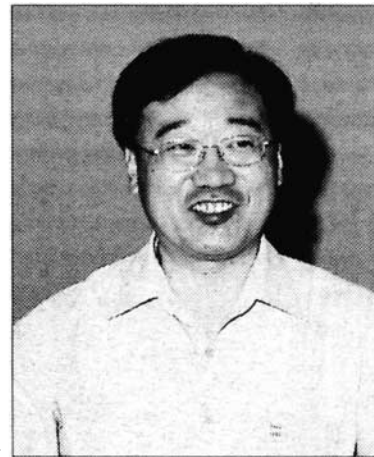
林炯澤



朴聖姬



金大觀



崔章容

林炯澤 : 공공시설 이용요금도 올리고 법이나 질서를 어길 경우 벌금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객들이 부담을 지면 그만큼 주변을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사 회 : 최근 발표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휴가 문화도

의 경우, 가족 단위로 할 때는 주제를 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우 올해 주제는 「갯벌 탐험」인데,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섬을 둘러보고 싶다면 해양수산부, 자연휴양림을 찾고 싶다면 산림청 홈페이지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여행을 다

에 청구하면 됩니다. 여권을 분실했을 때에 대비, 사진을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거나 여권 복사본을 준비하면 영사관에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잃었을 때도 복사본이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 잃어버리면 해당 항공사를 방문해 50달러 정도를 지불하고 재발

상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여행자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바로 상품의 내용입니다. 항공비, 호텔 숙박비, 관광지 관람료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이 낮으면 불거리나 숙박시설 등이 값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金大觀 : 결국 겉으로 나타난 가격만 저렴한 뿐이지 실제로 돈이 더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값이 싸면 현지에서 가서 쇼핑을 강요당하는 등 수준 낮은 관광을 하게 됩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이런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어느 여행사가 대만에서 1백 달러짜리 상품을 유치하기로 했는데 정보가 새는 바람에 대형여행사가 90달러에 가로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품

품가치는 10달러 떨어지게 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도 손해보는 관광을 하는 셈입니다.

사 회 : 여행관련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崔章容 : 사회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잘것없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관광분야 인력 수준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행사는 서비스업종이라고 해서 벤처기업 자금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서는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金大觀 : 정부에서 관광사업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익 위주로 따지지 말고 가치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비자 발급에서 외교문제에 이르기까지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모든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林炯澤 : 저는 국내든, 해외든 많이 여행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계획한 여행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유를 갖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 떠날 때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지역 생활상을 몸으로 느껴야

많이 달라지리라 보는데요.

金大觀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휴가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시기, 일부 지역에만 몰리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현재 우리가 TV를 통해 보는 명소들은 거의 대부분 파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관광의 주체가 그 지역 주민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광 수입이 지역으로 들어가야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을 소중히 다루고 그래야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광지 주민이 자기 세대의 이익에만 급급하고 후대에 넘겨줄 재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대대로 물려줄 재산이라는 의식이 있다면 지금 동강이나, 강화도 갯벌, 인천의 제부도가 저 정도로 엉망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국내나 해외 여행

녀 온 후 가족과 함께 느낀 점을 나눠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사 회 : 해외 여행을 나가게 되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요.

崔章容 : 떠나기 전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흔히 티켓 구매시 가입되는 보험을 여행자 보험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항공기 탑승 중간의 사고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행 중 겪게 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몇 가지 사고 대처 방법을 설명해드리지요. 현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엔 경찰서에 가서 잃어버린 품목을 기재해 확인서를 받은 후 국내 보험사

금받으면 됩니다. 여행자수표를 분실했을 때는 사인했으면 어쩔 수 없고 안했으면 국내에 들어와 신고하고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같은 제품은 고유번호를 알고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데 구입당시 가격은 아니고 감가상각을 감안한 액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이나 기내에서 짐을 분실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1킬로에 20달러밖에 보상되지 않으니 중요한 것들은 꼭 직접 들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아플 경우엔 현지 병원에서 진료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 회 : 흔히 해외 여행 상품이 국내 여행상품보다 더 싸다고 들었는데요.

崔章容 : 물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보다 여행

사 회 :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살아있는 이야기들이 정부관계자들과 동문 여러분에게 모두 잘 전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高錫九사장

“가뭄·홍수 예방위해 댐 추가 건설 불가피”

지난 5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高錫九(75년 工大卒)부사장이 취임했다. 정부의 공기업 낙하산 인사로 말이 많은 가운데, 공채출신의 내부 전문가가 선임된 것이다.

최근 가뭄으로 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댐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高사장을 만나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국민 물 사랑 운동」에 대해 들어보았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난 1967년에 창립돼 34년간 우리나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에 전념해 온 물 전문기관으로, 소양강 댐을 비롯한 전국의 11개 다목적댐에서 19억㎥의 홍수조절 능력, 연간 102억㎥의 물 공급과 1백만Kw의 발전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등 27개 광역상수도를 통해 하루 약 1,500만 ㎥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상수도 시설용량의 48.8%로서 약 1,8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강우에서 지하수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수자원 기초조사를 시행하여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 개발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중국 산서성 분하강 유역, 바누아투 공화국, 베트남 메콩강 유역 등 해외 수자원 조사사업에도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대체 수자원인 해수담수화, 중수도, 인공강우 등을 비롯한 수자원 이용 및 보전 전반에 걸친 각종 연구 개발과 물 관련 지방공무원 교육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시화·안산 등 국가산업단지와 특수지역개발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관리, 그리고 지방상수도 업무와 하천관

리에도 참여하여, 물에 관한 모든 일이 우리 회사에서 시작되고 또 끝나며, 수질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물 관리를 종합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물 사랑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UN이 이미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예상되는 물 부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몇 년 전부터 물을 아껴 쓰고 깨끗이 사용함으로써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하고 자연환경을 보다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국민 물 사랑 운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 만장의 절수스티커를 제작하여 전국의 공공기관이나 주요건물에 부착하고, 「물 글짓기 공모」, 「물 사진 공모」, 「물 절약 실천 우수기관 및 개인 표창」, 「물 사진 순회전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물 사랑을 실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달부터 Web Jin 「월간 하천문화」를 발간하고, 바람직한 하천환경의 복원과 미래지향적 하천문화의 조성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누구에게나 참여의 장이 활짝 열려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 운동을 통해 우리의 강과 하천이 하루빨리 생명과 아름다움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향후 한국수자원공사의 운영계획은.

『물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결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는 물이 풍요한 미국·캐나다·일본 등과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나 중동의 여타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이처럼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는 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댐에서부터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하천관리를 잇는 물 관리의 종합화를 우리공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며, 수량과 수질 모두를 책임지는 공기업이자 세계적 수준의 물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수질종합센터를 구축하여 최고 수준의 수도물 공급 서비스를 실현하고, 외국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및 선진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힘써 공사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며, 물 관리센터 및 권역별 통합급수체계를 구축하여 물 관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봄 가뭄, 여름철 물 피해 등 국내 수자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심한 몸살을 앓은 것이 불과 한 달 전의 일인데 이번에는 수도권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은 예에서 보시다시피,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가뭄과 홍수야말로 우리 나라 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뭄과 홍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멀리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어왔으며, 해방 이후 국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治水能力도 크게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물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아직도 우리의治水能力은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의 기후적·지형적 특성이나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이상기후 현상,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생활방식의 변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수자



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아직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름철에는 너무 많이 내리는 빗물을 가두어 홍수를 예방하고 봄이나 가을에는 가두어 두었던 물로 가뭄을 이기는 다목적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가뭄과 홍수예방을 위한 물 관리의 출발점은 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댐 건설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환경적·문화적 부작용이 초래되는 것도 사실이며, 또 결코 이를 무시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뭄과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물 관리대책은 추가적인 댐 건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에 12곳의 중소규모 댐을 추가로 건설해서 장래 예상되는 물 부족에 대비하고 치수능력을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때를 놓치지 않고 계획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립대에서 수자원공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高사장은 75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해 댐건설부 공사와장, 조사계획처장, 댐운영처장, 낙동강사업본부장, 수도권본부장, 기술본부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대법학회, 한국수자원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상하수도학회, 한국수질학회, 국제수자원학회, 미국토목학회, 미국수자원학회, 미국지질물리학회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變)

문화전문 MC 겸 리포터 朴琬信동문

매경 TV·KBS·iTV·SBS 두루 섭렵

“성악에서 배운 호흡·발음이 큰 도움”

많은 문화를 접하면서 대중으로서 그 깊이를 잘 모를 때가 있다.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이를 잘 해석하고 풀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여기에 소개하는 문화전문 MC 겸 리포터 朴琬信(99년 音大卒)동문은 문화와 대중간의 매신 역할을 자칭한 인물이다.

그는 솔직하면서도 예의 바른 인물이다.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애착을 가지고 그 재능을 충분히 자신의 일에서 살리는 방송인이다. 방송과 문화라는 매개체로 우리는 그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朴동문만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우리 그를 이해한 것이다.

iTV 「문화가 현장」에서 문화전문 리포터로서 자리 매김을 했으며, 현재 iTV의 「만나고 싶습니다」 코너에서 활동중인 朴동문은 많은 문화인물을 접하면서 그의 음악적 해석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매일경제TV 「메디컬센터」의 MC로 방송에 입문한 그는 초보시절을 거쳐 KBS 「문화탐험 오늘」로 전문리포터로서 그 색깔을 찾게 된다. 방송 3년차, 그는 이제서야 방송을 조금 알 것 같다고. 「메디컬센터」MC 시절 그는 방송을 위해 반쯤은 의사가 되어야 했고 성악과는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조언을 구하는 등 발로 뛰는 방송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문화계 방송을 맡은 이후로 그는 음악 지식을 밑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직접 섭외도 하며, 원고를 직접 쓰기도 하며 방송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성을 나타내기 위한 그의 노력으로 남들에게 맡기는 수동적인 방송인이 아닌 적극적인 전문인으로서 돋보이는 부분이다.

그는 방송을 하면서 성악에서 배운 호흡과 발음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주위의 스태프들로부터 남달리 깊이 있는 전달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고.

그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방송으로는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인터뷰 중 그가 직접 피아노를 연주하는 가운데, 주연 배우(남경읍)와 함께 노래를 부른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충분히 살린 방송이었기 때문이다. 일을 하면서 동문을 만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만 얼마 전 曹秀美동문을 인터뷰했을 때를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같은 동문으로서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던 曹秀美동문에게서 솔직하고 천진난만하며,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인간적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이제 방송에 있어서 진솔한 내면 세계가 더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그는 외적인 모습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방송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朴동문에게 있어서 노래는 생활이었고 습관이었다. 그가 유년기 때부터 입만 열면 노래가 나왔다고 한다. 외할아버지(안익태)가 그와 어머니(안순영)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의 어머니는 이화여대 음대 성악을 전공하였으며 안익태 기념사업재단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이런 내력과 천부적인 음악에 대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그가 성악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대학시절 음악저널 주최 신인음악회에 출전해 세종문화회관에서 연주회를 가진 바 있으며, 프랑스가곡 신인음악회에 출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유학을 꿈꾸던 그가 방송계에 입문한 것은 대학은사의 권유, 그리고 집안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 때문이었다고 한다. 대학시절 각종 연주, 학생들 레슨, 결혼식 축하를 불러주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벌며 쓰던 그가 내린 결정은 아마도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방송계에 처음 입문할 때 반대했던 가족들이 이제 그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그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는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장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신다고.

클래식에 대한 이해와 전달을 돕기 위해선 자신이 먼저 많은 지식을 쌓아야하고 그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하길 원한다는 朴동문. 그에게 있어서 문화는 곧 자신의 삶이고 이를 쉽고 편안하게 전달하는 것이 삶의 역할인 것이다. 앞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KBS 라디오 「송승환의 문화 읽기」에 고정패널로 출연할 예정이며, SBS 「금요 Culture 클럽」에 MC를 맡을 계획이라고 한다. 朴동문은 방송 중에 겪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문화 이야기에 대한 책을 쓸 계획도 가지고 있다.

많은 후배들이 방송인을 꿈꾸고 있는데, 지식이나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자세와 함께 사회를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날카롭게 비평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근 언론계에서는 전문인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다.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이로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정확히 전달할 필요를 알게된 것이다. 때문에 의료 전문기자, 일기예보 전문 아나운서, 과학 전문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의 활약이 눈에 띄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인이 활약하는 만큼 문화 분야에서도 그 필요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의 요구에 편승한 신예 문화전문 MC로서 朴동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亨)



영국 런던지부

올해는 아유회를 통해 우의 다질 터

글 : 孫斗璿 (65년 工大卒·BRISKO International 사장) 회장

신사의 나라, 산업혁명의 시발지, 민주주의 의회정치가 최초로 시도된 나라 등으로 인식되어진 영국. 영국은 흔히 England, 또는 Great Britain이라 불리고 있지만, 정식 이름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영국은 두 개의 큰 섬과 주변의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섬들은 British Isles라고 칭한다.

앞서 언급한 두 개의 큰 섬은 Great Britain과 Ireland이며, Great Britain 섬은 England, Scotland, Wales 등의 3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특히 Ireland는 서북과 남쪽에 위치한 Southern Ireland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Northern Ireland는 영국에 속해 있으며,

Southern Ireland는 별도 독립국으로 정식 이름은 The Republic of Ireland이다.

한국과 영국과의 관계는 1797년 영국 군함 HMS Providence(선장 William Broughton)가 부산항에 입항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영국은 지난 1950년에 6·25전쟁 당시 UN군의 일원으로 병력을 한국에 파견한 바 있으며, 6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나라이기도 하다. 또한 1969년 한국의 농촌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자, 지질기술자 등을 대거 파견하기도 했으며, 영국 포드사의 협력으로 현대자동차는 코티나를 조립 생산하여 1974년 포니차를 처음 선보일 수 있었다.

한반도보다 약간 큰 영국은 면적이 총 24만 평방 킬로미터로 산악지대가 적고, 넓은 초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국토 유용면적은 한반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는 약 6천만 명 정도로, 외래 종족은 6%에 이르며 주로 캐러비언, 아프리카, 인도, 파키스탄계가 여기에 속한다.

영국은 일찍이 산업화를 거쳐 사회보장제도가 무엇보다 잘 돼 있어 매우 안정된 나라라 할 수 있다. 단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이지만, 보수적인 경향이 강해 미국과 같은 나라와는 달리 이민해온 외국인이 정착하여 생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한편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나라 교포는 3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 은행, 금융업 등의 주재원과 영국에 유학한 학생들, 특히 어학연수생들을 모두 합치면 그 수가 2만 명에 이른다.

영국 런던지부가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1993년 4월 7일 재영 서울

대총동창회 창립총회가 개최되면서부터이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는 康哲壽(58년 工大卒) 동문의 주도하에 동문간의 만남



孫斗璿 회장

이 잦아졌고, 1992년 당시 서울대총동창회 회장이었던 崔主鎬 명예회장이 영국 런던지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공헌을 했다.

1백여 명의 동문이 활동하고 있는 영국 런던지부는 매년 2~3회씩 동문 친목 골프모임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연말에는 부부동반 송년 모임 겸 정기총회를 가지며 동문간의 우의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동문 및 동문 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아유회를 계획,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1998년 우리 나라 경제사정이 IMF 영향으로 어렵게 된 후 영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규모를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회원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동창회는 이와 관계없이 동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 실천하여 회원들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할 것을 다짐해본다.



매년 개최하는 가족 동반 모임



사회교육과 동창회

전통·학풍 담긴 「50년사」 발행에 힘 쏟아

글 : 曹道根 (61년 師大卒·인하대 교수) 회장



曹道根 회장

사회교육과 동창회가 1964년 10월 창립된 이래 올해가 37년이 되는 해이다. 초대 회장인 金璣洙 동문을 비롯해, 2대 韓基彦·3대 鄭鎮河·4대 具龍鉉·5대 孔聖述·6대 全基彩·7대 韓都淵·8대 金俊文·9대 曹圭三·10대 閔丙駿·11대 文尙鎬·12대 鄭正薰 동문 등이 동창회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한 공로에 힘입어, 13대 회장인 필자와 함께 1천3백여 명의 동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창회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그 동안 사회교육과 동창회가 펼쳐온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회원 수첩을 1967년 10월에 처음 간행하여 금년 1월 10번째 (서울사대 회원 명부에 게재) 회원 수첩을 발행했고, 사회교육과 동문 및 동문가족 모두가 모이는 친목 등산대회를 1988년 4월 5일에 시작해, 지난 5월 1일 11번째를 맞이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매년 1월 초순에 개최되는 정기 총회에서는 경향 각지에서 참석한 회원

과 모교 은사님을 모시고 신년하례회를 가짐으로써 친목 도모와 우의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은사님의 회갑, 정년, 고회 기념 논문 발간 및 증정과 참여를 비롯해 회갑 및 고회연을 개최하는 등 선후배간의 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지금까지 개최해온 행사로는 朴德培 교수 회갑연(1968년 11월 24일), 金錫穆 교수 회갑연(1969년 9월 20일), 朴德培 교수 정년 퇴임 기념회(1974년 3월 29일), 金錫穆 교수 정년 퇴임식 참여(1974년 9월 4일), 金桂淑 교수 고회 기념 논문 증정(1975년 8월 8일), 朴德培 교수 고회 기념 논문집 증정(1979년 8월 10일), 金錫穆 교수 고회 기념 논문집 증정(1979년 9월 26일), 李榮基 교수 회갑연(1983년 10월 22일), 韓基彦 교수 회갑 기념 논문집 증정식 참여(1985년 9월 21일), 李榮基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증정(1988년 11월 19일), 韓基彦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증정식 참여(1990년 3월 10일), 尹鎔基 교수 회갑 기념 논문 증정식 참여(1992년 11월 21일), 韓基彦 교수 고회 기념 논문집 증정식 참여(1994년 6월 11일), 尹鎔基 교수 정년 기념 논문집 증정식 참여(1997년 10월 18일) 등이 있으며, 韓基彦 교수 기초주의 40주년 기념

논문집 증정식(1997년 11월 15일)에는 자문 위원, 준비 위원, 상임 위원 등으로 동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와 더불어 동문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동문들에게는 공로패를 증정해 오고 있으며, 2000년에는 韓基彦·金璣洙 동문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金俊文·韓都淵·曹圭三 동문이 공로패를 받았다.

또한 우리 동문회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동문 회보가 창립 이후부터 발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20번째 회보가 전 동문들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교육학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동문 회원들의 국내외 논문 발표와 단행본의 출간을 돕는데 적

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편 가장 큰 자부심을 갖고 진행중인 사업은 단연 「사회교육과 50년사」의 간행이다. 사회교육과의 전통, 학풍, 정신을 담은 50년사 간행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들의 역사임과 동시에 새로운 50년을 내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앞으로 다음 50년을 위해 사회교육과 동창회는 동문회와 사회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펼쳐 왔던 전통과 학풍, 그리고 사회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교육과 100년사」 간행을 위해 1천3백여 명의 공동체 모두가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개최하는 친목 등산대회



⑥1 유진사이언스

콜레스테롤 저하 음료 「콜제로」 개발

공격적 마케팅으로 시장 장악 초읽기

인체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지방질의 하나인 콜레스테롤, 하지만 이를 과다 섭취하면 동맥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이 점차 축적되어 혈관의 통로를 좁히며 이로 인해 결국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을 단지 마시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음료인 「콜제로」를 개발한 생명공학 벤처기업 유진사이언스(사장 盧承權·83년 自然大卒).

유진사이언스(www.eugene21.com)는 올해 3백억 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기존의 기술 개발에만 치중하던 바이오 업체들과는 달리 영업력 확충과 TV광고 제작, 콜레스테롤 질환자들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콜제로닷컴(www.cholzero.com)을 적극 홍보하는 등 마케팅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진사이언스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표방하고 나선 것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적절한 판촉 및 마케팅 전략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장될 위험이 더욱 크다는 것을 발빠르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편 유진사이언스는 「콜제로」의 국내 유통의 일환으로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 전문업체인 (주) 유콜바이옴을 자회사로 설립, 현재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월마트, 까르푸 등의 대형 유통점에 이미 입점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콜제로」의 국내 대형 할인점망 활용과 더불어 콜레스테롤 전문사이트인 콜제로닷컴을 이용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CRM(Customer Relationship Man-



盧承權 사장

agement)을 실시하는 등 첨단 바이오 기술이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유공(현 SK) 바이오텍 사업부 팀장 출신인 盧사장이 유진사이언스를 창업하게 된 것은 지난 97년으로, 일반인들의 육체 노동이 줄어들고 식생활이 점차 풍요로워짐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성인병을 유발하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착안,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천연물질 개발에 그 중점을 두고 착수했다.

그 후 4개월에 걸쳐 연구진들과 함께 국내의 생명공학 관련 논문과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진 盧사장은 콜레스테롤과 분자구조가 비슷한 식물스테롤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그러나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식물스테롤은 물이나 기름에 녹지 않아 미국의 존슨앤존슨, 일본의 아지노모토社 등 내로라하는 기업들조차 지용성 식품인 식용유, 마가린 등으로만 활용되어 왔던 것이다.

수 차례의 실험을 거친 끝에 세계 최초로 식물스테롤을 수용화시킨 「유콜」이란 콜레스테롤 저하물질을 개발한 유진사이언스는 이를 이용, 콜레스테롤 저하 기능성 음료인 「콜제로」를 탄생시켰다. 이는 자연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의 부작용 중 하나인 간 독성에 대한 걱정을 없애주며, 맛도 달

콤해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진사이언스는 이에 대한 사업 아이템의 시장성을 판단하기 위해 영국 Pharmaventures 컨설팅사에 시장조사를 의뢰, 60억 달러를 상회하는 시장 규모라는 답변을 얻어내 대중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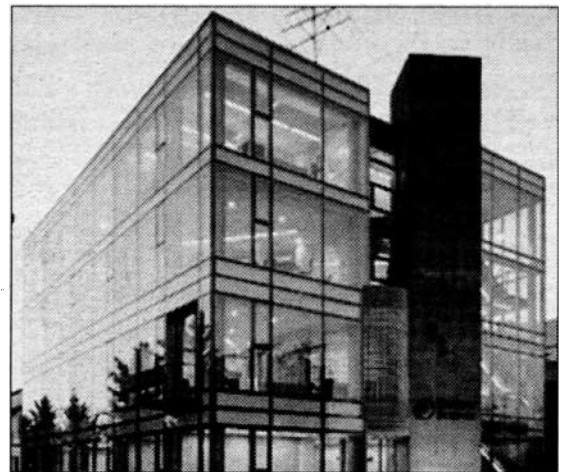
지난해 한국기술대전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유진사이언스는 세계 3대 벤처캐피탈 중의 하나인 H&Q로부터 60억 원의 투자를 국내 바이오벤처 최초로 일거내는 기쁨을 토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월 「콜제로」의 미국 수출을 성사시킨 유진사이언스는 이러한 여세를 더욱 몰아 일본, 중국, 동남아, 호주 등과도 활발한 수출 협상을 진행중이다.

국내 동종 업계의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는 유진사이언스는 앞으로 유전자 연구와 영양학을 결합, 개개인에 맞는 약과 식품에 대한 조언뿐만 아니라 예방 및 치료까지 할 수 있는 영양유전체학(Nutra-genomics) 기

업으로 거듭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3년 내에 「콜제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영양 패턴과 유전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개인의 맞춤형 치료 개발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자원부 차세대 신기술 개발 사업 중 단백질 칩 총괄 기관으로 선정된 유진사이언스는 2003년 9월까지 식품 오염 및 독성 검출용 단백질 칩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 분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盧사장은 「발상의 전환으로 세계 시장에서 반발자국 앞서 나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며 「유진사이언스를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로 만들 것」이라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表)



유진바이오텍연구소 전경



콜레스테롤 저하 음료 「콜제로」



맹목적인 자식 사랑이 교육 위기 부른다

張東萬(61년 文理大卒)재미 자유기고가



『한국 교육 이대론 안 된다』
『그래서 「교육이민」이 줄을 잇는다』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이 서야 한다』
지금 교육에서 한창 드높은 교육 위기론의 외침이자 사람들의 탄식이다.

그 동안 교육 전문가들이 갖은 머리를 짜내어 온갖 정책·제도를 마련, 실험·시행해 왔고 또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아는데, 과연 한국 교육 위기론의 그 근본 실체는 무엇일 것인가?

좀 색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한국이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만큼 된 데에는 높은 교육열이 큰 원동력이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이는 어디에서 오는가?·말할 것도 없이 한국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지극한 「자식 사랑」에서 유래한다. 즉 지극한 「자식 사랑」→ 높은 교육열 → 개인과 국가의 발전·성공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그런데 이같이 개인과 국가의 발전 성공을 가져온 극진한 「자식 사랑」= 높은 교육열 등식이 이제는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 지금과 같은 교육 위기론·교육 부재론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

년에 60~70조원에 달하는 극성 과외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외국 유학비, 그것도 모자라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고국을 떠나는 교육이민의 행렬 - 이 모두가 극진한 「자식 사랑」= 높은 교육열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 본능인 「자식 사랑」, 거기서 비롯되는 내 자식을 보다 잘 키우겠다는 높은 교육열,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 인줄 안다. 그리고 그 높은 교육열은 더욱 북돋으면 북돋아야지 결코 그 열을 식혀서는 안될 줄 안다. 그러나 그 「자식 사랑」= 높은 교육열이 이제 한국에 있어 올바른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의 발목을 잡고, 그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니 이를 어쩔 것인가?

「일류」 「최고」를 무자비하게 강요하는 부모들의 극진한 「자식 사랑」= 높은 교육열은 어린이들을 무서운 경쟁의 마당으로 내 몬다. 성수대교 붕괴 때 한 교사가 했다는 말, 『너의(대학입시) 경쟁자들이 많이 죽어 버려 너희들은 좋겠다』 또 입학원서 접수 때 집안 아이가 하는 말, 『옆에 있는 아이가 연필 좀 빌려 달라는 것을 안 빌려 줬어요. 경쟁자를 도와주면 내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섬뜩한 말

들이 어떻게 해서 학교 선생 입에서, 티없는 어린 아이 입에서 나오는가?

이 모두가 입시 때면 절에 가서, 교회에 나가서, 『오직 내 아들, 내 딸만은 꼭 합격을...』 간구하는 부모들, 내 아들·딸이 합격되려면 남의 아들·딸들이 낙방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부모들의 맹목적인 「자식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학교 간판이 마치 인생이라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등급)표 같은 구실을 하는 사회, 학원이 사회생활에서 큰 advantage가 되는 사회, 국내 대학 졸업장만으로는 버젓한 job 하나 구할 수 없는 오늘날 현실...

한국 학부모들이 왜 그렇게 「자식 사랑」에 극성인지, 왜 그렇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그 전후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너무나 도를 지나친, 맹목적인, 무조건적인, 이 「자식 사랑」이 이제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니 이를 어쩔 것인가?

세계화, 글로벌화, 정보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우리의 이 인간 본능인 「자식 사랑」도 한자 감성의 단계를 벗어나 보다 이성의 범주로 승화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자식은 「나의 혈육」 「나의 분신」이라는 너무나 피에 집착하는 우리의 인생관, 자녀관에 어떤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 같다. 혹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가뜩이나 비인간화되어 가는데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인간성의 발현인 「자식 사랑」마저도 식혀버리자는 것이냐고 힐난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식 사랑」에 대한 사고의 전환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끝으로 참고삼아, 30여 년간 미국 생활을 해온 필자의 눈에 비친 미국 일반 중산층 사람들의 자녀관 및 세계관을 나름대로 대충 요약해 보면 이렇 것 같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give a birth to you) 그래서 독립할 때까지는 힘껏 support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모에게 너무 의존치는 말라. 너는 하나의 독립된 생명(인격)체, 너는 너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다. 내 인생을 희생 - 물론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다 - 하면서까지 돌볼 수는 없다. 내가 죽은 후에라도 행여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것이라는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

인간의 권리 잃은 빈민 문제는 심각하다

柳貞順(73년 家政大卒)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인간의 능력을 0~10으로 평가한다면 IMF 이전에는 1~2의 능력자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으나, IMF 이후 2~3의 능력자도 일자리를 보전하기가 힘들어졌고, 4~7의 능력자들은 자칫하면 비정규직으로 전락되기 쉬워진 반면에, 최근 2년 동안에 연봉 1억 이상의 봉급자수는 두 배로 늘어났다. 따라서 분배구조 악화와 생계불안층의 양산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장과 사회가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노동상품성이 낮은 사람은 생산시장에서 배제되어 소득보존의 길이 막혀 빈곤층으로 전락되면, 유효수요(구매력) 상실로 인하여 시장에서 소외되고, 시장 소외는 곧 총체적 삶의 인간소외로 연결된다. IMF 이후 시장소외자들의 생계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우리가 단지 시장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사는 것이라면 시장소외자들의 생존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소득획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활을 돕고 최저생계를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여야 합의에 통과되어 작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러나 막상 법이 시행되고 보니 예산 부족으로 많은 적격자들이 탈락되고, 보장수준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급여가 12만원으로서 최저생계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투표권도, 사회보장권마저 잃은 사람이 57만 명이나 되며, 의료보험료가 체납되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1백91만 명이나 된다.

현대 문명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성공했으나 조기은퇴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수준의 제도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은퇴 후 30~40년씩 소득 없이 살아야 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몇%나 몇 번의 큰 수술이나 재산관리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빈곤층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현재 생계보장 대상은 하위 3.3%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90% 이상의 계층이 저야 할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지금 제도를 정비해 놓으면 향후에 노령,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잃거나 투자실패, 투병 등으로 재산을 잃은 사람은 누구나 사회보장수혜자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주부로서 가사를 돌보다가 40이 다된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96년 8월에 「빈곤선 재정립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복지기본선의 확보와 빈민생존권의 사회적 보장을 위하여 참여연대,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왔다. 그리고 최근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설립하여 빈부격차 완화와 빈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연구, 정책대안 제시, 빈민상담, 탈빈곤지원 및 복지단체 경영컨설팅을 시작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를 도와주는 것은 무한경쟁 체제로 치닫는 우리 사회를 「평등과 나눔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로 이행시켜, 설령 장애인으로 태어났거나 노령,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주거빈곤으로 인하여 삶의 등지를 잃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61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생존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권리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투표권과 사회보장권마저 박탈된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

헌법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권리」 즉, 시민권으로서의 생존

권이 명시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존권은 실정법상의 권리성 급여 내지 청구권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1백51만 명으로 1천만 빈민의 15%에 불과하고, 보장 수준 또한 1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12만원으로서 최저생계비는 커녕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빈민의 생존권 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한 규모로 책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악육강식의 경제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는 보수적 언론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민 여론이 이들에 의해 호도되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면을 통해서라도 동문 여러분들의 자원봉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연구직, 전문경영인, 공직자로 근무하다 은퇴한 뜻을 같이하는 동문의 자원봉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819-21-0351-791, 류정순, 전화: 744-6827)

모교소식

중문과 전현직 교수 12명 장학기금 1억5천만원 출연

모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전현직 교수 12명이 지난 7월 25일 그 동안 교재판매비 인쇄비 등을 적립해 마련한 1억5천만원을 중문장학기금으로 내놓았다.

이 기금은 올 2학기부터 매년 학기당 1천만원씩 연 2천만원을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금이 조성된 것은 지난

1980년 초 지금은 정년퇴임한 崔完植, 金時俊교수가 학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푼푼이 돈을 모으자는 의견을 낸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李炳漢·金學主 명예교수를 비롯해 許成道·徐敬浩·宋龍準·吳洙亨·柳種睦·全炯俊·李永朱·李康齋교수 등이 동참하고, 학과장 명의로 통장이 대물림되면서 10만원에서부

터 많게는 백만원 단위까지 돈이 쌓였다.

宋龍準학과장은 『인문학 위기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 요즘 대학원생이나 학부생마저 침체된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며 『올 4월 기금을 장학기금으로 쓰자는 교수들의 합의를 거쳤고, 8월 중순부터 학기당 6~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어중문학과 교수들은 지난 7월 23일 주소가 파악된 중어중문학과 6백여 동문에게 편지와 e-메일을 보내 장학기금 모금에 동참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공과대학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 시상

공과대학(학장 李長茂)은 지난 6월 22일 제9회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한국코트렐 李達雨(53년工大卒·본회 부회장)회장과 대덕전자 金貞植(56년工大卒·본회 부회장)회장이 국내 부문, 버지니아 주립대학 尹汝煥(67년工大卒)교수와 벨연구소 陳成浩(69년工大卒)연구원이 해외 부문의 수상자로 결정됐다.



李達雨 동문



金貞植 동문

모교 李鍾一-TEST사업본부장

“기존 시험과 달리 실용영어 중시”



최근 모교 TEPS사업본부장에 선임된 李鍾一(75년文理大卒)동문을 만나 모교가 자체 개발한 영어검정능력시험인 TEPS에 관한 소개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모교 졸업 후 지금까지 영문학 연구와 교육에 몸담아왔으며, 지난 98년 영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 모교 어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조선일보가

그 동안 담당해오던 TEPS사업이 모교로 이전되면서 그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TEPS에 미력하나마 관여해왔지만, 이렇게 중책을 맡게 되니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지금부터라도 모르는 부분은 배워가면서 또한 부족한 부분은 열성으로 채워가면서 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쏟을 예정입니다』

—「TEPS」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의 약자인 TEPS는 모교 어학연구소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하게 시도해온 영어능력평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어학습의 시대적인 추세에 맞추어 개발한 영어능력검정시험입니다. 특히 학구성과 실용성을 겸비,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청해, 문법, 어휘 및 독해 등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2시간 20분 동안 2백 문제를 풀게 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또한 기계적인 암기나

일정한 문제유형을 단기간에 숙달함으로써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존의 시험과는 달리 실용영어의 활용능력을 중시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TEPS는 문항반응이론(IRT)을 도입, 수험자의 영어실력을 아홉 단계로 구분해 변별력을 높게 측정하는 점에서 그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TEPS만의 장점이거나 경쟁력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미국유학생을 대상으로 삼는 시험의 경우 그 내용이 지나치게 미국적이며, 학문적인 방면에 너무 편향되어 있어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보편적인 시험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춘 시험의 경우, 비즈니스 분야에 너무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정부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채택하기에는 실상 적절치 못한 시험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너무 쉬운 데다 오랜 동안 동일한 문제은행에서 출제하다보니 그 유형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짧은 시간 안에 고득점 획득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9백점 이상의 고득점자가 실생활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TEPS는 일상생활 전 분야에 걸쳐 활용도가 높은 영어능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의 보편성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유난히 어렵게 여기거나 잘못 사용하기 쉬운 내용들을 고려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적절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EPS 사업부의 향후 계획은.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이미 자국에서 개발한 시험인 STEP, CET가 단연 독보적인 시험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TEPS는 한국 영어의 발달이라는 공익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익의 대부분은 한국 영어의 발달과 교육 진흥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한편 TEPS는 이제 시행된 지 겨우 2년 남짓 된 걸음마 단계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머지 않은 시기에 문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급률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가장 으뜸가는 평가를 받는 시험으로 정착, 한국의 영어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表)

포스코IB

18일까지 시범운영

모교 관악캠퍼스 스포츠센터인 포스코IB(관장 趙信燮)가 오는 9월 1일 개관을 앞두고, 7월 2일부터 8월 18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 기간에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장, 스쿼시/라켓볼장의 일일입장 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입장별로는 시범강습(헬스, 수영, 스쿼시/라켓볼, 에어로빅 등)을 할 예정이다.

박물관

신소장품 특별전

박물관(관장 李鍾祥)은 오는 9월 8일까지 여름방학 맞이 신소장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최근 10년간 새로 소장한 유물들로서 고고역사, 전통미술, 인류민속, 현대미술 등으로 나뉘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게 전시한다.

특별기고

서울대 개혁은 서울대에 맡겨야

愼鏞廈(61년 文理大卒) 모교 사회학과 교수, 교수협의회장



기초학문 중시는 보편적 학문관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할 때에는 학문체계를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으로 구분해서, 기초학문을 먼저 강조하고 그 토대 위에 응용학문을 더욱 발전시키는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학문의 본질상 기초학문이 선행되어 연구교육되어야 동시에 응용학문도 더 잘 연구교육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초과학을 중요시하는 것은 전 세계의 상식화된 일반적 학문관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도 이러한 전통을 내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전통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원리에 따라서 능력과 수익이 발생하는 쪽을 중요시하겠다는 정책을 입안하고 그 정책을 대학과 학문의 원칙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학·학문세계와 산업·시장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BK21사업의 취지는 좋았는데, 이것은 WTO체제 이전의 기술의 국제적 자유이전, 과학의 자유 이동이 무상으로 허용되고 장려되었던 때의 정책을 바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드웨어 쪽에만 투자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큰 실책이었습니다. 현재의 국제경쟁력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경쟁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기초과학에서 새 아이디어가 주로 나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전세계적으로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에 의해서 찬란한 창조적 새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술대학만 육성하면 된다고 착각을 했는데 지금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기초과학을 육성해서 대학원 중심으로 교육받은 젊은 영재들이 새 이론을 만들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잠재력 경쟁력 세계 정상이지만

서울대의 경쟁력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 설명하면 첫째는 잠재적 국제경쟁력, 둘째는 현재적(표출적) 국제경쟁력입니다. 우선 서울대의 학부·학사과정의 잠재적 국제경쟁력은 세계 최고 중의 하나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심지어 서울대에서 떨어진 학생이 하버드나 예일대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수들 70~75%가 미국 등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인데, 서울대 재학생 중 상위 5%내의 학생들이 교수가 된 것입니다. 잠재적 경쟁력은 서울대 교수가 세계 정상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잠재적 경쟁력을 현재적 경쟁력으로 발현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꼭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수

대 학생 비율이 동경대가 1 대 9, 하버드대가 1 대 10 정도인데 반해 서울대는 1 대 27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교수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두 세배의 시간이 소요되니까 연구가 방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수 연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서울대 교수의 봉급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와 비해 55%밖에 안됩니다. 학교전체 시설은 괜찮은데, 교수에 대한 지원은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경쟁력은 세계 정상의 하나인데 현재적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현재의 국제경쟁력은 55위 정도에 있습니다. 세계대학의 55위 중 30개 대학이 미국 대학입니다. 나머지 대학 중에서 서울대가 논문편수와 국제 잡지에 게재된 순위로 55번째인데 나라별로는 5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잠재적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에 대한 교육지원은 맨 처음에 약 800위에서 BK21을 통해 지원받아 약 600위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적으로 서울대가 전세계적으로 55위 했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것은 서울대에 대한 연구자원이 강화 증가되면 서울대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정상의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수들이 문제점 제일 잘 알아

서울대 개혁은 서울대학교에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서울대 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여러 국가 중에서 교육부가 대학에 대해서 초등학교 다루듯이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학을 대학자율에 맡깁니다. 원칙만 정해주고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대학 육성연구기금을 정부 재정자금으로 만들어 놓고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하면 각 대학이 추천한 평가위원들의 결정에 따라 20개 대학만 지원해주고 일체 간섭하지 않습니다. 20위에 들어야 대학 재정이 풍요해지니까 아주 자율적으로 경쟁하면서 발전합니다. 우리의 경우 서울대가 우뚝 솟으니까 그것을 눌러 하향 평준화해서 어떻게 하려는 쪽으로 머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한심한 정책입니다.

우선 정부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예산을 대부분 초등학교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고등학교도 현재 교육과정에 맞춰 상당히 간섭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와 똑같이 간섭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은 그래서 안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이미 학생들의 실력이 증명이 됐고, 교

수들은 교육부의 행정관리보다 판단력도 높고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중·고등학교처럼 다루니까 대학들이 침체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정책에 관해서 지시 감독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수한 기구를 두어서 지원만 하도록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만 행정간섭을 하고 있지,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대학에 대해 이렇게 교육부가 행정간섭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고쳐서 대학을 자율화시키지 않으면 대학은 국제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기초학문에 투자를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연구 활동을 할 수 있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BK21 시행 후 서울대에 투자가 되었지만 교수들에게는 지원증가가 안되었습니다. 전부 대학원 학생들에게만 투자가 되었고 교수들은 지도만 하는 것입니다. BK21에 포함된 대학원 학생들은 여유가 생겼지만, 정작 연구를 하는 젊은 교수의 봉급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의 55%수준에 묶어두고 어떻게 연구 활동이 되겠습니까?

학사과정 폐지는 현실성 없어

서울대 내부의 개혁은 해야겠지만 張會翼교수가 제안한 바와 같이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대학원만 두는 방법은 현실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가 국제경쟁력을 갖는 가장 큰 요인은 학사과정에 들어온 학생들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이고, 또 이 학생들 중에서 상위 5%가 교수로 뽑혀왔기에 잠재적인 연구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학사과정 없이 대학원만 가지고 대학을 우수하게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타대학 학사과정 졸업생이 출신 대학의 대학원으로 우선 진학하지 왜 서울대 대학원으로 오겠습니까.

대학원 중심대학을 만든다는 것은 종래 학사과정만을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동시에 대학원도 중요시하는 대학으로 만들자는 것이지, 학사과정을 없애거나 유보하거나 약화시키고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대는 Inbreeding한다?

Inbreeding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아니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할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Inbreeding은 예를 들어 교수직 자리가 하나 있는데 10명이 지원하여 성적을 매겼을 경우, 1등이 타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이를 버리고 2등이나 3등이 자기 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현실을 예를 들면 교수 지원자 10명중 1등에서 7등까지가 서울대 출신이고, 8등부터 10등까지가 타대학 출신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때 1등인 서울대 출신을 뽑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Inbreeding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우수한 성적을 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Inbreeding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부가 몇 년도까지 교수 정원의 3분의 1을 타대학 출신을 선임하라고 강요하면 Inbreeding 방지는커녕 교수의 질을 꼭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1등을 뽑되 단 1등이 타대학 출신이라고 해서 모교 출신인 2, 3등을 뽑는 것을 절대로 금한다」고 해야 올바른 정책이지, 무조건 1등에서 7등을 짓혀 두고 타대학 출신인데 Inbreeding을 방지하기 위해 8등을 뽑으라고 하면은 못뽑는 것입니다.

채점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우면 서울대 교수는 채점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외부에서 채점을 하되 1등을 뽑으라고 해야지 무조건 서울대 출신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대에 대한 억압정책에 불과합니다.

위기의 3가지 요인과 해결책

지난 학기에 교수협의회에서 서울대의 위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다고 답한 분이 85%정도가 됩니다. 그 위기 요인의 첫째는 교육부의 지나친 행정간섭입니다. 총장에 대해서 교육부 과장도 간섭을 하려고 텀빌 정도입니다. 둘째는 교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총장이 독선적으로, 자의적으로 일처리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본부의 행정이 교육부의 행정을 쳐다보고 있고, 교수의 의견을 듣거나 실정에 맞는 행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교육지원이 너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교육부의 지나친 행정간섭으로 말미암은 대학 자율성의 소멸, 총장이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육부의 지시를 그냥 받아들이어서 자의적인 행정을 하는 것, 교육 연구투자의 부족입니다.

이렇게 지적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교육부는 서울대에 대한 행정간섭을 대폭 줄이고 대학에 대하여 자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교육 행정의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총장이 민주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교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자율성 없이 교육행정부의 눈치만 보는데, 총장은 교수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행정 체계가 민주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연구투자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실제로 연구활동을 하는 교수들에 대한 지원강화가 있어야 서울대가 세계정상의 현재적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7월 24일 대담 녹음)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聖者와 승부사 기질 공존하는 서울대인

劉純信(유니코써머치 사장) : 鄭世赫(78년 人文大卒·영창실업 상무)등문 부인



어느 집단이나 그 집단의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고정된 이미지가 있다. S그룹 사람들은 「자로 켜 듯 빈틈이 없다」, H그룹 사람들은 「추진력이 강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들이 그러한 예이다.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소속 집단의 이미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 집단에 소속되어 세월을 보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대는 오래도록 각계 각층의 핵심 인재를 배출하고 사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그런 서울대도 다른 어떤 집단이나 대학 못지 않게 고정적인 집단 이미지를 가진 것 같다. 많은 기업과 인재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 보니 서울대 출신 인재들을 술하게 만나게 된다. 자연스럽게 학습된 고정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대부분 갖게 되는 첫인상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다. 「이 사람 서울대 출신 맞아?」, 아니면 「역시 서울대 출신답구나!」

직업상 내가 만난 대부분의 서울대 출신 인재들은 후자에 속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투혼,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 정신,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기 혁신의 마음이 집... 내가 아는 한 서울대 출신 인재들은 이런 자질을 가진 뛰어난 승부사였다. 그러나 내 기억 속에는 첫 만남에서 전자의 생각을 갖게 한 경우가 두 번 있

었다. 처음의 경우는 나의 남편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서울대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던 나였기에 남편만은 반드시 서울대 출신이어야 한다는 오기를 가지고 있었다. 대학 1학년 가을 축제 때 미팅에서 남편을 만났다. 하지만 처음 만난 순간의 남편 모습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서울대생의 이미지와는 영 판판이었다. 비틀즈를 닮은 장발에 최첨단 유행을 타는 듯한 옷매무새, 다분히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그의 기질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오죽하면 언니가 진짜 서울대생 맞느냐며, 학적부를 떼어보라고 했을까. 그러나 몇 마디 말을 나누면서 전자의 인상은 곧 후자의 이미지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만난 지 7년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두 번째 경우는 2남3녀 형제 모두와 그 배우자들, 심지어는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모두 서울대 동문인 특이한 가족이었다. 일 관계로 그 형제분 중 맏이 되는 분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불일이 있어 그 맥을 찾아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이 부친의 87세 생신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불쑥 들어간 아파트 현관에 가득히 신발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분을 내게 소개한 知人으로부터 이미 그 분의 가정 내력에 대해 자세히 들었기 때문에 조카들까지 온 가족이 모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만 주눅이 드는 기분이었다. 형제 자매와 그 배우자, 조카 셋까지 도합 열 셋이 서울

대 동문인 가족이라니...

그러나 간소하게 차린 생신상 겸 저녁상을 그 대가족과 함께 하면서 나는 특이한 서울대 동문 가족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알게 되었다. 모두 서울대 출신이지만 정작 유명인사가 되거나 큰돈을 번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 서울대 출신이라는 간판이 부끄러울 정도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남자, 여자,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다. 지난 IMF때 모 그룹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고 작은 회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위도 있었고, 여자인데다 박사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이 지겨워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며느리도 있었다. 서울대 신입생으로 이제 막 대학생활에 재미를 붙인 손녀도 있었고, 대학 강사에서 전업주부로 들어왔을 딸도 있었다.

자녀 다섯을 서울대에 보낸 그 대단한 어머니는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치매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부담스러워 하지도 않았다. 거의 3초 간격으로 똑같은 질문을 해대는 노모에게 모든 자녀들이 돌아가며 똑같은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여유를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였다. 열 다섯 중학생부터

오십 줄 큰아들까지 둘러앉은 자리에서 대화의 주제는 다양했다.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에서부터 시골시골한 노동계 사태, 모 자동차 회사의 패각에 대한 이야기, 정치 이야기까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고, 서로 생각이 달라도 요즘 TV토론 프로에서 정치가들이 나와 토론한답시고 핏대를 세우듯이 그렇게 핏대를 세우는 사람도 없었다.

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처음 보았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승부사적 기질의 서울대 출신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다. 그저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를 알며, 분투할 때와 만족할 때를 아는 평온한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울대 출신임을 실감케 했던 것은 그들이 보여준 「여유」였다. 내게는 그들의 여유가 정상에 올라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 보였다. 그리고 그 여유로 인해 그들은 내 눈에 성자처럼 비쳤다. 성자 같은 서울대 출신...

서울대 동문 중에는 승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자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발견한 그날, 나는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성자와 승부사가 공존하는 대학이 이 나라 최고의 대학으로 자리하는 한, 이 나라에는 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인간적인 따뜻함과 너그러움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박 성 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정말 답답하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쥐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면 얼마나 쥐야 하나? 이런 엉터리 서비스를 받고도 쥐야 하는 건가? 언제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몰래 주는 게 좋을까 공개적으로 주는 게 더 나을까?

문제의 핵심은 다름 아닌 「팁(Tip)」입니다. 음식점, 미장원, 목욕탕, 단란주점(아주 가끔이긴 하지만)에 갈 때마다 이런 고민, 갈등, 회의로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부서 회식 혹은 모임이나 접대를 위해 다소 비싼 음식점에 간 경우 맛있는 음식, 종업원들의 불친절, 엉망인 식당안

분위기 등으로 주고 싶지 않은데도 관행상 혹은 같이 간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서 쥐야 하는 지경에 이르면 정말이지 머리에서 쥐가 납니다.

그렇다고 「팁을 주지 말자」 「팁제도가 공식화돼 있지 않은데 무엇 때문에 주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제 경우 나이도 있고 일하는 게 얼마나 고달픈가를 아는 만큼 팁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실제 저녁나절 음식점에 갔을 경우 보

게 될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노래방 기계를 작동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더라도 하면 영락없이 팁을 쥐야 하는 상황이 되지요.

난감한 건 이 모든 곳에서 도대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주는 것이 적정인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미장원의 경우 드라이는 8천원이나 1만2천원(물론 더싼 곳도 있습니다), 퍼머는 3만5천원(2만원짜리도 있지요) 혹은 6만5천원, 8만5천원식으로 가격을 부르는 곳이 많습

팁, 도대체 언제 얼마나 쥐야 하나

기에도 안쓰러운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지도 서지도 못한 상태에서 고기를 자르거나, 아래 위층을 오가며 무거운 접시에 담긴 쪼개다시를 나르는 모습을 보면 「얼마라도 쥐야지」 마음먹게 됩니다.

미장원이나 목욕탕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어쩌다 드라이를 하거나 퍼머를 하기 위해 미장원에 간 경우, 한창 놀고 싶을 나이에 한 손으로 잡기 어려운 커다란 드라이를 들고 힘까지 쥐가며 머리를 손질하거나 파마약이 앞치마 가득 묻어있는 걸 보고 있노라면 「팁을 쥐야 할텐데」 싶어집니다.

부서장(데스크) 시절보다는 훨씬 적어졌지만 회사 안팎의 일로 단란주점에 가

나. 2천원이나 3천원, 5천원 혹은 그 이상의 잔돈을 팁으로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보기에 안쓰럽고 관행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입 닦고 모른 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엔 특히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아는 체도 좀 해주고 서비스도 신경써서 해주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다만 「얼마나」가 문제지요. 차라리 10%면 10%, 10~15%면 10~15%식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편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니 갑갑한 것이지요. 사실 8천원짜리 머리를 하고 2천원을 팁으로 주면 자

그마치 25%잖아요. 3만5천원짜리를 하고 5천원을 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지요. 그렇다고 1천원을 주자니 약간 쪼끄러운 기분이 들구요.

이런 저런 고민 끝에, 제 경우엔 적어도 일식집에선 쪼개다시가 두 세 가지 나올 때쯤 팁을 미리 줍니다. 파킨한 된장국물이라도 자주 바꿔 주니까요. 갈비집처럼 종업원의 재량권이 적은 곳에선 중간에 줄 필요가 없는 것 같더군요. 다른 곳에선 서비스의 질에 따라 좀 냉정해지자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글쎄요. 술집에선 서비스의 질보다 여자종업원의 얼굴이 팁의 액수를 좌우한다고 하더군요. 진짜 그런가요?

이제쯤 우리 사회에서도 팁에 관한 정식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서비스업종의 경우 어느 정도 주면 좋은지 아예 범위를 정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하구요.

팁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아는 사람의 소개로 물건을 사거나, 일을 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등) 「알아서」라는 대목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대치 차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착오를 낳는가는 경험한 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팁의 범위를 정하고, 매사에 정확한 약속(계약)을 하는 쪽이 돈은 물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SNUA OPINION LEADER

지난 84년부터 세계적인 암치료 전문병원인 미국 텍사스의대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수로서 폐암 관련 논문만 국제학술지에 1백50여 편을 실을 정도로 폐암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손꼽히고 있는 李振洙(이진수) 문. 그에게서 우리나라 암 치료의 현황과 전망을 들어보았다.

암은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의 하나이다. 현재 한국에서도 암은 전체 사망원인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질환으로 대두되었으며, 암은 곧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 통념 때문에 일단 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사형선고를 받은 것 같은 충격에서 오랫동안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환자 자신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과 간병하는 가족들의 노동력 상실 및 치료비 부담에 따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부담도 막대한 수치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십 수년 동안에 걸쳐 개발된 새로운 항암제와 구토 등 항암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을 없애는 약제의 개발로 인하여 이제는 많은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전체 암환자의 50%가 완치되고 있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암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는 국립암센터가 지난 6월 20일 개원되어 암환자 치료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케 된 것을 계기로 우리 나라 암 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 해결 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식생활 서구화로 암 발생유형 변화

암의 발생기전을 한 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암은 정상세포 속에 들어 있는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 세포증식 및 분화에 작용하는 정상적인 통제기능의 제어를 받지 않고 증식하는 세포들로 인하여 생기는 증후군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주요 원인으로는 발암물질과 감염 바이러스나 Papiloma같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하여 초래된 암유전자(oncogene) 및 암억제 유전자(tumor suppressor gene)의 구조상 기능상의 변화가 폐암을 위시한 각종 암과, 간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발암 물질이나 자외선에 의해 생긴 DNA손상을 교정하는 유전자의 기능 장애와 APC 유전자 및 BRCA1, BRCA2 유전자의 돌연변이도 일부 대장암과 유방암, 난소암의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헬리코박테라균의 감염이 위암 발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암 발생 위험도의 자연적 증가와 흡연 등을 통한 발암물질에의 인위적 노출,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고지방 저섬유질 식이 전환이 현재 우리 나라 암 발생 유형의 변화를 가져온 주요 요인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암 치료 현황과 전망

특히 한국과 일본 사람들에게 많은 것으로 알려진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반면 폐암과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이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자료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나라 남자의 경우, 위암으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1985년도의 40.5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1999년도의 30.3명과 비교할 때 25% 이상 감소한 반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동 기간동안에 12.0명에서 31.7명으로 164% 증가하였고,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은 2.7명에서 8.5명으로 215% 증가하였다. 간암에 의한 사망률은 1990년도의 35.4명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9년도의 사망률이 32.8명으로써 남자 암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새로운 항암제 개발로 퇴치 가능

암에 관한 근본적 연구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은 미국에서는 암에 관한 연구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그 연구결과를 환자 치료에 직접 연계시키기 위하여 1971년도에 「National Cancer Act」를 제정 공포하고 막대한 연구자금을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주관하게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암 전문 치료 인력을 길러 냈을 뿐만 아니라 암 전문 치료 센터를 세우고 지원함으로써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전문의사에 의한 치료를 받게 되었다.

동시에 이미 임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Taxol, Taxotere, Gemzar, Navelbine, Irinotecan 등의 화학 요법제와 요즈음 기적의 항암제라고 각광을 받는 글리벡 등이 개발되었으며 앞으로도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제가 더 많이 개발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특히 anti-HER2/neu 면역 항체인 Herceptin은 이미 유방암 치료에 있어 획기적인 신약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EGFR작용을 억제하는 C225 면역항체(Cetuximab)와 ZD1839(Iressa) 등은 대장암, 폐암, 두경부암 등의 치료에 효능이 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항암제 개발과 더불어 항암제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항구토제 및 조절 촉진인자, 그리고 새로운 항생제의 개발은 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약제의 개발은 암 퇴치까지도 가능케 하리라고 전망된다.

임상연구비 지원체계 수립이 시급

이러한 획기적인 암 치료제 개발과 앞으로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은 아직도 의료외적 요인에 의하여 많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현재의 건강 보험 수가 체계 내에서는 새로 개발된 고가의 치료제나 개발 중에 있는 약을 이용한 임상연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새로 개발된 신약을 사용할 때 오는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 수가 상한액을 책정

하는 것은 현명한 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일차약, 이차약 등으로 구분된 치료비용 범위의 획일적 적용은 새로운 치료 방식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시도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외국에서 시행된 치료방식만 그대로 답습한다면 어떻게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 개발할 수 있겠는가? 국립암센터와 같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인준하는 임상치료 연구에 필요한 고가약과 개발 중에 있는 신약의 구입 및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해 주는 임상연구비 지원체계의 수립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된다.

둘째,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전문 의료인력의 결여이다. 과거에 좋은 치료 약제가 없었을 때에는 모든 암 조직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만이 암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원자력병원의 개원과 더불어 우리 나라에도 방사선을 이용한 암 치료법이 도입되어 증상 완화는 물론 수술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제는 새로이 개발된 항암제와 분자 생물학적 방법을 통하여 개발된 면역항체, 성장 신호 전달체제를 차단하는 새로운 약제들을 이용하여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항암 치료는 특별히 훈련받은 암 전문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셋째, 환자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암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부족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어떤 질병의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질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고 인식되어질 경우에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민간요법과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비방들이 떠돌게 마련이다. 많은 암환자들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강박관념 속에서 「적어도 뭘가 되지는 않지 않느냐」는 논리로 이른바 건강식품과 자연식품, 보약, 면역항진제, 항산화제 등을 섭취하고 있는 것을 본다.

또한 환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약사 빠른 상술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당한 경우를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된다.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기도원에 가고 산 속 암자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일이 아니지만, 모든 항암치료를 중단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사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약해진 환자들을 현혹하는 과대 광고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일반 국민들의 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중요한 사실은 암도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이 치료를 받으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만성병이라는 사실이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기는 병도 아니다.

하나의 암세포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직경 1cm 정도의 크기까지 자라려면 그 암세포가 하나도



李 振 洙

- 74년 모교 의대 졸업
- 76년 보건대학원 졸업
- 미국 텍사스의대 MD앤더슨 병원 흉부종양내과 교수
- 국립 암센터 병원장

죽지 않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30번의 세포 분열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암으로 인한 어떤 증상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수개월 내지 수년 이상 암이 몸 속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할 수 없지만, 암은 오히려 적절히 치료하면 완치될 수도 있는 유일한 만성병이다. 비록 완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죽음이 라는 불치의 병을 숙명적으로 안고 살아가면서도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치료받는 이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활을 구가할 수 있다.

한가지 경계하고 싶은 것은 오직 완치해야만 된다는 일념 때문에 암에 좋다는 비방을 찾아서 동분서주하다 보면 귀중한 시간만 낭비하고 불안과 초조감 속에서 헤어나갈 길이 없다는 것이다. 암의 예방이나 치료에 좋다는 비방들이 대중 매체에 범람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오직 암에 대한 바른 이해만이 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야기되는 피해를 줄이는 첩경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적극적인 투자·제도적 뒷받침 요구

국립 암센터의 개원과 더불어 우리 나라 암 치료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다. 종래의 수술위주로 주도되어온 암 치료 체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항암제와 새로이 개발되는 약제들을 기존의 외과적 수술 및 방사선 치료와 병행하는 복합적 치료법을 연구 개발하고 우리 나라 의료 현실에 맞추어 정착시킴으로써 많은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리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우리 나라의 GNP도 1만불 대에 도달하였다.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새로운 약제들을 비싼 값으로 수입하여 쓰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소비 시장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수한 연구인력과 지금까지 축적한 분자생물학적 기술을 한곳으로 모아 신약 개발에 과감히 투자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개발한 신약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때가 조만간 오리라고 믿는다.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연구 개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만이 이를 가능케 하리라고 본다.



최고산업전략과정

KDI 康奉均원장 특강 펼쳐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淳鍾)는 지난 6월 29일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룸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교 李長茂공대학장의 인사말에 이어 高昇熹

총간사장이 모교 교수 및 신입회원들을 소개했다.

이어 연사로 초청된 한국개발연구원 康奉均(69년 商大卒)원장이 「Stock Market Capitalism시대의 한국기업의 진로」라

는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치며, 기업의 가치 제고 및 주주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위해 동창회 曹元鎬재무간사, 黃德南홍보간사, 申東勛섭외간사, 金政永총무간사, 金西坤감사, 姜錫大감사 등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미술대학

9월 23일 인터넷 동문전 개최



미술대학동창회(회장 李信子)는 지난 6월 29일 모교 관악캠퍼스 미대 학장실에서 尹亨圭·白顯鉉·曹泳哲·朱敏淑부회장,

李鶴淑·金芝烈·洪貞姬·李吉龍·李承娟·孫文子·鄭大有·金春玉·申鉉章·金선희 이사, 成耆點사무간사, 李容德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모교에 설립 예정인 학술 정보 자료관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을 펼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전 동문에게 서적 및 자료 기증을 요청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기금조성위원회를 발족,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편 동창회는 오는 9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백일간에 걸쳐 인터넷 동문전(www.howart.com)을 개최하기로 했으며, 전시개막 기념행사 및 총회는 9월 22일에 가지기로 의견을 모았다.

河東哲학장의 초청으로 만찬을 가진 동문들은 모교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경영 73회

신임 회장에 李善周동문 선출

경영73동기회(회장 吳泰一)는 지난 7월 3일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에서 모교 郭守根교수, 신한은행 金善九부장, 한국벤처금융 盧永晚대표, 경희대 朴商秀교수, 삼성생명 朴容立상무, 삼일회계법인 尹在倬부대표, 삼성화재 尹亨模상무, 쌍용양회 李允浩상무, 씨티은행 李載一이사, 외환은행 e-biz사업부 李鍾仁팀장, 대성회계법인 鄭憲卓전무, 삼전리 M&C 陳柱

華사장, 한양대 韓正和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입학 30주년이 되는 2003년 3월에 기념행사를 가지기로 협의했으며, 행사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상호 논의했다. 또한 지역모임 활성화를 위한 소모임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회장에 李善



周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신임 李회장은 77년 경영대를 졸업한 후 대우 상무, 대우자동차 폴란드 자동차 생산법인 managing director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5월부터 메디슨 에코넷 대표를 맡고 있다.

단을 포함한 2001년도 명부를 새로 제작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올해부터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을 시상하기로 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재미동창회에 대한 자세한 근황소개도 아울러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가진 이사회에서 모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기금을 추가로 모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의과대학

자랑스러운 동문상 신설키로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佑宰)는 지난 7월 5일 사당동 소재 「대웅수산」에서 金東勳·鄭英彩·申鉉一·林永一·金振球·白文英부회장, 朴根植감사, 金善中이사, 禹希宗·尹汝成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회의 및 장학재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동창회 홈페이지(www.vetalumni.co.kr)를 개설하기로 했으며, 각 기별 및 직장 지부 명

ROTC동문회

친선골프대회서 洪회장 우승

ROTC동문회(회장 洪宗浩)는 지난 7월 10일 이포CC에서 동문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능률협회 李錫奎인증위원, 아토피기획 李京元회장, 오라클 崔南圭고문, 대흥개발 梁常弘대표, 원이솔 元鍾榮대표, 아경산업 吳世煥대표, 모교 사회학과 洪斗承교수, 인성인프라 金時弘회장, YC통상 梁楨洙대표, 제일슈핑 李光遠대표, 네오

빌 崔海元사장, 인투스 柳成雲부사장, 아리바코리아 金正範대표, 키모스정보통신 金漢錫대표, 성원개발 崔宇永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대회에서 洪회장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으며, 梁楨洙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李京元동문이 Longest에, 吳世煥동문이 Nearest에 각각 선정됐다.

마로니에회

金炳日차관 축하 모임 개최



문리대 64학번 동기 모임인 마로니에회(회장 鄭昭盛)는 지난 6월 20일 신사동 「감자바우」 식당에서 예산기획처 차관에 취임한 金炳日동문 축하 모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국사편찬위원회 高惠玲연구위원, 영남대 金基台교수, 국민투자금융 金東珽사장, 한국철도차량 金泰典전무, 前문화관광부 辛鉉雄차관, 고려농산 吳世英사장, 前보람증권 李宇鎔부사장, 성균관대 李漢龜문리대학장, 林雲奉세무사, 前

보건복지부 張錫準차관, UPS 鄭明洙한국지사장, 아메리칸 에어라인 車進道한국지사장, 농협중앙회 許 璽상무, 영남대 金永文교수, 중앙일보 卞相根논설위원 등 동문 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미국 뉴욕에서 귀국한 李大永동문이 동창회 홈페이지 후원금으로 금일봉을 출연했으며, 치대 졸업생으로 마로니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오고 있는 盧 正동문이 50만원을 지원했다.

마산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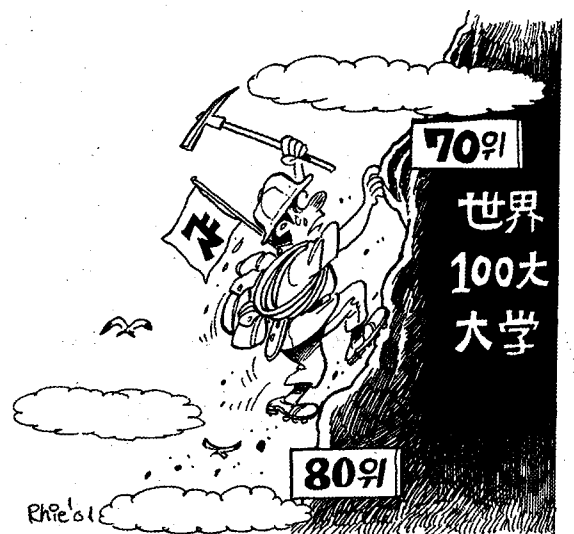
창원 경륜공단서 경기 관람

마산지부동창회(회장 李 進)는 지난 7월15일 창원경륜공단 朴三玉(70년 文理大卒)이사장의 초청으로 창원경륜공단을 방문했다.

이날 참석한 동문들은 차이사에 감사패를 전달한 후 경륜공단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으며, 경륜경기를 관람하고 시험배팅을 했다. (表)

만 평

李 元 馥



까마득한 頂上, 그러나 반드시 올라야 할 곳

동 정

수 상

▲洪性裕(48년 法大入·소설가)
=오는 9월 5일 예술원에서 제46회 대한민국 예술원상(문학 부문)을 수상한다.

▲皇甫漢(60년 工大卒·한국통신 위성운용단장)=오는 8월 29일 항공우주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미국 항공우주학회(AIAA)의 2001년 폰브라운 상을 수상한다.

▲朴永寬(64년 醫大卒·부천세종병원 이사장·한국어린이보호재단 이사장)=지난 7월 6일 열린 제3회 범죄예방자원봉사 한마음대회에서 2001년 범죄예방자원봉사상 특별상을 받음.

▲朱光逸(65년 法大卒·前국민고충처리위원장·제일국제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지난 6월 14일 국민고충처리위원장직을 성실히 수행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尹鍾龍(66년 工大卒·삼성전자 부회장)=지난 7월 16일 세계적 가치공학(VE) 전문단체인 세이브 인터내셔널의 브루스 렌저 회장으로 부터 공로상을 받음.

▲鄭喜成(68년 文理大卒·시인)
=최근 창작과 비평사가 제정한 제16회 南海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됨. 시상식은 오는 11월 30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余琮琪(70년 工大卒·LG화학 기술연구원장)=지난 7월 1~6일 호주에서 열린 세계화학총회(WCC) 산하 아시아 화학연합기구(FACS) 총회에서 「경제발전 공로상」을 받음.

▲李景台(70년 商大卒·대외경제 정책연구원장)=최근 이슈투데이 사이트 오픈 1주년 기념으로 전문가·칼럼니스트에게 수여하는 「베스트 칼럼상(사회분야)」를 수상함.

▲李鍾郁(71년 藥大卒·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지난 7월 12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19회 정진기 언론문화상(생명화학분야)을 받음.

▲李基秀(72년 大學院卒·고려대 교수)=지난 7월 23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여하는 제32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함.

▲尹順寧(73년 看護大卒·모교간호학과 교수)=지난 7월 4일 제3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서 근로자 건강보호와 산재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음.

▲金亨郁(74년 工大卒·현대자동차 실장)=지난 7월 12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19회 정진기 언론문화상(에너지환경분야)을 받음.

▲李秉基(74년 工大卒·모교연구처장)=오는 9월 17일 학술원에서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 부문)을 수상

한다.

▲黃健豪(74년 商大卒·메리츠증권 사장)=지난 7월 5일 한국생산성본부 주최 경영생 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생산성 향상 유공자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함.

▲朴聖會(75년 醫大卒·모교병리학교실 교수)=오는 9월 17일 학술원에서 제46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부문)을 수상한다.

▲李侑載(82년 經營大卒·모교경영학과 교수)=지난 7월 12일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정진기 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경제경영도서분야 장려상을 받음.

이 동 · 선 임

▲張明洙(56년 工大卒·우석대총장)=지난 7월 1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됨.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 副會長)=지난 7월 2일 하얏트호텔에서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에 취임함.

▲成贊慶(57년 文理大卒·시인)=지난 7월 9일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에 선출됨.

편집주간식

www.snua.or.kr

서울대총동창회 Web Site를 보완하고 Upgrade시켜 재개통 하였습니다.

Off-Line에서의 만남과 On-Line에서의 만남을 통해 동문간의 친목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모교 발전에 熱과 誠을 한데로 모아 나갑시다.

▲金洛斗(57년 藥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됨.

▲黃仁政(58년 文理大卒·강원발전연구원장)=최근 열린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朴世熙(59년 文理大卒·모교 명예교수·本報 論說委員)=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됨.

▲金允植(59년 師大卒·모교국어국문학과 교수)=지난 7월 9일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에 선출됨.

▲朴世直(60년 文理大卒·前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장)=지난 7월 10일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임시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선출됨.

▲申世吉(61년 商大卒·前삼성

유럽본사 사장)=지난 7월 9일 야후코리아 경영고문에 위촉됨.

▲李台燮(62년 工大卒·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지난 7월 6일 개최된 국제라이온스클럽 제84차 총회에서 국내 처음으로 국제 제2부총재에 선출됨. 1년 뒤에 제1부총재, 2003년에 세계총재에 추대될 예정임.

▲金昌國(58년 法大入·前대한변협 회장)=오는 11월 15일 공식 출범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됨.

▲李時伯(62년 獸醫大卒·모교보건학과 교수·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지난 7월 21일 국제가족계획연맹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이사회에서 의장에 선출됨.

▲盧五鉉(63년 工大卒·모교기계항공공학부 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됨.

▲宋相現(63년 法大卒·모교 법학부 교수)=최근 법무부 사범시험관리위원회 위원에 위촉됨.

▲郭秀一(63년 商大卒·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됨.

▲朴元勳(64년 工大卒·KIST 책임연구원)=지난 7월 1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됨.

▲趙源永(64년 文理大卒·前과이낸설뉴스 대표)=최근 한국

산업도면 전산화 진흥협회 회장에 취임함.

▲陳政一(64년 文理大卒·고려대 교수·대한화학회장)=지난 7월 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국제순수응용화학연합회 총회에서 고분자분과회 부회장에 선임됨.

▲徐大錫(65년 文理大卒·모교국어국문학과 교수)=최근 내년으로 창립 50주년을 맞는 국어국문학회 제33대 대표이사에 취임함.

▲劉承三(65년 文理大卒·중앙일보 출판M&B 대표)=지난 7월 6일 중앙일보 논설고문에 선임됨.

▲姜光(65년 美大卒·인천대 교수)=지난 7월 18일 인천대 부총장에 선임됨.

▲鄭泰翼(65년 法大卒·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지난 7월 14일 외교안보연구원장에 임명됨.

▲朴容晟(65년 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7월 24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국제유도연맹(IJF) 총회에서 4년 임기의 회장에 재선임됨.

▲池龍熙(65년 商大卒·서강대 교수)=지난 7월 10일 개최된 한국벤처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朱德永(66년 工大卒·기술표준위원장)=지난 7월 24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에 선임됨.

▲金榮培(66년 文理大卒·중앙일보 논설위원실장)=지난 7월 6일 중앙일보 출판M&B 대표이사 사장 겸 세계를 간다(주)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李富植(66년 文理大卒·前과학기술부 차관)=지난 7월 2일 교통개발연구원 제8대 원장에 선임됨.

▲崔圭微(66년 法大卒·동아일보 편집국장)=지난 7월 10일 동아일보 논설위원실장에 선임됨.

▲宋哲鎬(67년 文理大卒·前제일보 대표)=최근 충남 홍성 청운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에 선임됨.

▲李明煥(67년 商大卒·前효성생활산업 대표)=지난 7월 2일 (주)동부 사장에 선임됨.

▲尹柱秀(68년 工大卒·건교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지난 7월 25일 인천국제공항철도(주)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鄭熙周(68년 農大卒·前대우상용차 대표)=지난 7월 9일 호텔정보화기업(주)루넷 회장에 선임됨.

▲趙源玖(68년 商大卒·前한국내화 대표)=지난 7월 2일 (주)동부 부사장에 선임됨.

▲崔壽鉉(69년 工大卒·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7월 25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제2대 원장에 선임됨.

▲崔協(69년 文理大卒·전남대 교수)=최근 영남대에서 열린 제33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에서 임기 2년

의 차기 회장에 선출됨.

▲張基澤(69년 法大卒·前쌍용그룹 구조조정본부장)=최근 싱가포르 CDL(서울힐튼호텔의 모회사) 이사회에서 CDL코리아 부사장에 선임됨.

▲金鍾兌(69년 師大卒·前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지난 7월 10일 한진해운 기획담당 부사장에 선임됨.

▲沈潤相(69년 醫大卒·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과장)=지난 7월 5일 원자력병원 제7대 병원장에 취임함.

▲宋永吾(70년 文理大卒·駐스리랑카 대사)=지난 7월 14일 외교통상부 의전장에 임명됨.

▲柳洲烈(70년 文理大卒·외교통상부 총무과장)=지난 7월 24일 駐나고야 총영사에 임명됨.

▲李孟基(70년 法大卒·前국세심판원 조사관)=지난 6월 29일 증권거래소 부이사장보에 선임됨.

▲盧鈺燮(70년 師大卒·감사원 제1사무차장)=지난 7월 17일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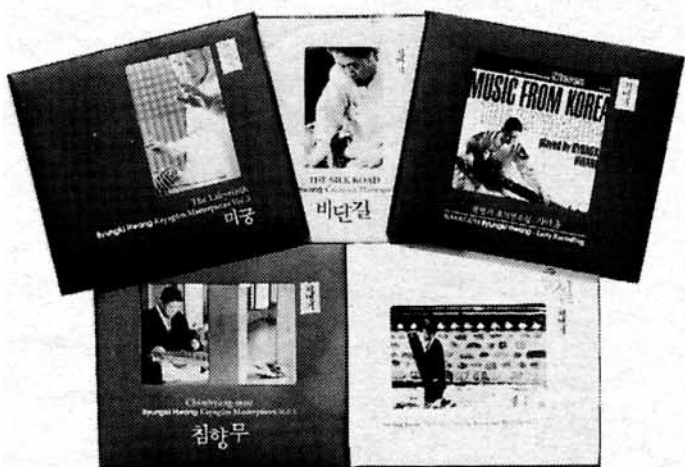
▲閔相基(70년 商大卒·모교 대학원장)=지난 7월 3일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에 선임됨.

▲李寅源(70년 新大院卒·前문화일보 부사장)=지난 7월 12일 열린 한국대학신문 이사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孫承泰(71년 工大卒·감사원 기획관리실장)=지난 7월 17일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임명됨.

가야금 명인 黃秉冀동문

창작활동 40년 결산 음반 선보여



가야금 명인이자 창작국악의 거봉 黃秉冀(59년 法大卒)동문이 최근 창작활동 40년을 결산하는 5종의 음반(C

&L 뮤직)을 선보였다. 「침향무」, 「비단길」, 「미궁」, 「춘설」 등 기존 음반을 선명한 음질로 리마스터링한

4종과 국내에 첫 발매되는 초기연주집 「가야금」 등이다.

「가야금」은 국악음반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출시됐던 앨범. 1965년 하와이에서 녹음돼 미국에서만 판매된 것으로 당시 20대 후반이던 黃동문의 힘이 넘치는 연주가 담겨 있다.

이번에 나온 음반들은 黃동문의 예술성에 걸맞게 수출용 고급판형으로 제작됐다. 黃동문의 음악세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한국어, 영어, 불어, 일어 등 4개 국어로 실은 소형책자도 덧붙였다.

8월말에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는 黃동문은 서울 90송년 통일음악회 집행위원장, 국악의 해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유니세프 문화예술인 클럽 회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變)

▲閔陽基(71년 醫大卒·모교 이 비인 후과학교 실 교수)=최근 러시아 야로슬라블에서 개최된 국제 비염 감염 및 알레르기 학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金東晉(72년 工大卒·현대 상용차 부문 사장)=지난 7월 24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鄭聖立(72년 工大卒·대우조선 전무)=지난 7월 27일 대우조선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文昌克(72년 文理大卒·중앙일보 국장)=지난 7월 6일 중앙일보 회장비서실장 겸 전략기획담당 이사에 선임됨.

▲沈基昌(72년 文理大卒·내과 전문의)=지난 7월 2일 시카고 제25대 한인회 이사장에 선임됨.

▲白文圭(72년 法大卒·의료보험연합회 경기지부장)=최근 의료보험연합회 심사기준실장에 선임됨.

▲鄭輝泳(73년 農大卒·감사원 사무총장)=지난 7월 17일 감

사원 감사위원회에 임명됨.
▲全聖喆(73년 文理大卒·세종대 세계경영대학원장)=지난 7월 11일 세종대 부총장에 취임함.

▲趙誠勇(73년 文理大卒·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금호사무소 대표)=지난 7월 24일 駐후쿠오카 총영사에 임명됨.

▲金相甲(73년 法大卒·前HSD 엔진 전무)=지난 7월 11일 두산중공업 영업 및 사업관리를 총괄하는 사업부문장(부사장)에 선임됨.

▲李鍾九(73년 商大卒·재경부장관 특별보좌관)=지난 7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됨.

▲李相天(74년 工大卒·영남대 총장)=지난 7월 1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됨.

▲洪宗崎(74년 文理大卒·통상교섭본부 뉴라운드담당 심의관)=지난 7월 24일 駐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공사에 임명됨.

▲辛正承(75년 文理大卒·駐중국 공사)=지난 7월 14일 외교통상부 공보관에 임명됨.

▲趙建植(75년 文理大卒·통일

부 교류협력국장)=지난 7월 1일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에 임명됨.

▲李啓安(75년 商大卒·현대자동차 사장)=지난 7월 24일 현대캐피탈 회장에 선임됨.

▲梁峯烈(76년 社會大卒·외교통상부 외무인사기획담당관)=지난 7월 24일 駐휴스턴 총영사에 임명됨.

▲崔忠柱(77년 社會大卒·駐네바다대표부 공사참사관)=지난 7월 24일 駐벨기에 EU 공사에 임명됨.

▲金殷相(78년 經營大卒·前모건스탠리 한국지점장)=지난 7월 2일 살로먼스미스바니 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鮮于鍾聲(79년 工大卒·前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단장)=지난 7월 4일 한국정보인증 기술연구소장에 선임됨.

▲康錦實(79년 法大卒·변호사)=지난 7월 23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에 위촉됨.

▲金鉉(81년 工大卒·맥스텔레콤 부사장)=지난 7월 1일 맥스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韓榮喆(81년 工大卒·前대우자동차 상무)=지난 7월 18일 스웨덴 볼보 트럭의 한국법인인(주)볼보트럭코리아 사장에 선임됨.

▲裴佑根(81년 環大院卒·한양대 교수)=지난 7월 23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에 위촉됨.

▲李錫兌(82년 法大卒·변호사)=지난 7월 23일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에 위촉됨.

▲具喆會(82년 醫大卒·경상대 교수)=최근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정형외과학술지인 「Clinical Orthopaedics and Related Research」의 고관절 무릎성괴사분야 심사위원에 위촉됨.

▲成素美(83년 社會大卒·KDI 기업정책팀 연구위원)=지난 7월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업정책팀장에 선임됨.

▲張興淳(44기 AMP·벤처기업 협회장)=지난 7월 16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됨.

▲朴成得(20기 ACAD·前정보통신부 차관)=지난 7월 4일 선박항해통신장비 분야의 전문 제조회사인 사라콤의 고문에 취임함.

▲張基哲(33기 ACAD·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지난 7월 26일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6개 시·도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중앙회장에 취임함.

행사·출간

▲柳達永(36년 水原高農卒·성천문화재단 이사장)=최근 성천아카데미 개교 10주년을 맞아 2001년 추계강좌부터 회원에 가입하면 전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회원자유수강제를 실시함.

▲鄭瑢載(50년 文理大卒·前이화여대 교수)=지난 6월 22일 이화여대 경영관에서 과학교육과동창회 주최로 저서 「여로와 여정 그리고 나의 삶」 출판기념회를 가짐.

▲朴英子(50년 師大卒·세계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장)=지난 7월 21~24일 루마니아 IASI UNIREA 호텔에서 제3차 세계시인시낭송문학연구회의를 개최함.

▲盧隆熙(52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정주장학회 이사장)=지난 7월 21일 경기 연천군 전곡에서 아이리시회원(장학금수혜자)의 하계수련대회와 제19회 교양강좌를 가짐.

▲李榮德(52년 師大卒·월드컵문화시민중앙협의회 회장)=8월 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백38개 시·군을 순회하는 「월드컵 D-300 전국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개최한다.

▲權純福(56년 法大卒·지방행정연구소 이사장)=지난 7월 20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여자치 실현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醫大同窓會長)=지난 6월 27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스키스市에서 열린 의대미주동창회 여름 학술대회에 참석, 국내외 재미 의료인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강조하는 내용의 개막인사를 함. 또 지난 7월 25일 대전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육군본부와 學·軍협약 조인식을 갖고 양 기관간 상호교류 및 협력방안을 논의함.

▲金后蘭(53년 師大入·한국여성문학인회 고문·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지난 7월 12일 중구 예

장동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문학의 집·서울」 창간식을 가짐.
▲鄭宗澤(58년 法大卒·충청대학 학장·세계태권도문화축제 2001 대회장·本會 副會長)=지난 6월 28일 신라호텔에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 기념리셉션을 개최했으며,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축하음악회를 가짐.

▲裴榮漢(58년 商大卒·초록배미디어 명예회장)=지난 6월 23~28일 6·25 전쟁 참전 51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캐나다 오타와, 토론토, 밴쿠버를 다녀옴.

▲曹慶鍾(60년 獸醫大卒·한국소비자연맹 부산광역시회 회장)=지난 7월 31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특강을 실시함.

▲崔昌圭(62년 文理大卒·성균관장·새천년종교인 윤리 평화총연합 대표의장)=지난 7월 27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제2회 종교인 윤리현장 실천을 위한 학술연구 발표회를 가짐.

▲權丙鉉(63년 法大卒·재외동포재단 이사장)=지난 7월 9~12일 롯데호텔에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50개국 현지 한인회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1 세계한인회장대회」를 개최함.

▲李容璟(64년 工大卒·KTF 사장)=지난 7월 26일 제주도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하는 「2001 벤처기업 최고경영자 서머스쿨」에 연사로 참석, 「모바일 비즈니스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연함.

▲河珍圭(64년 工大卒·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지난 7월 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내 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 복원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함.

▲鄭英一(64년 商大卒·모교 경제학부 교수·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지난 7월 19일 충북 충주 농협경제연구원 에서 「농업경제학 발전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모교 동양화와 鄭暉永교수

독일서 세번째 개인전 가져 英 킹스턴大서 작품전 예정



모교 미대 동양학과 鄭暉永(60년 美大卒)교수(사진)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독일 베를린 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 예약당에서 세 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駐독일 한국대사관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전시회에서 鄭교수는 최근 수묵화 작품 18점을 선보였으며, 26일에는 독일 문화계 인사 및 한국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정서와 표현의 세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을 통해 한국인의 소박성, 여백의 미, 겸양의 미덕, 해학성과 유희의 표출 등 한국미술에 나타난 특성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지적하고,

중국과 일본의 표현세계를 비교 분석했다. 또 질박하고 단아하며, 人力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天人地合一로 이뤄놓은 한국인의 순수성을 강조하면서 농경민의 敬天思想을 설명했다.

강연회와 동시에 시연회를 갖고, 參禪과 冥想을 통한 선비의 정신과 餘技생활로부터 발전한 文人畫 정신과 표현기법을 선보여 참석자들이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鄭교수는 독일 전시회를 마친 후 동아시아박물관 Veit관 장으로부터 차후 개인전 초청 제의를 받기도 했다.

한편 鄭교수는 오는 8월 16일부터 25일까지 駐英 한국대사관 후원으로 킹스턴大 전시관에서 작품전과 강연을 펼친 예정이다.

鄭교수의 이번 전시회가 한국미술에 관한 국제적 새로운 인식과 호응을 얻어내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오는 2003년 8월에 정년 퇴임하는 鄭교수는 앞으로 자연과 인간을 조화시키는 造景작품을 남기는 것이 마지막 꿈이라고 귀뜸해 주었다. <變>

개최함.

▲李哲雨(65년 農大卒·롯데리아 대표)=최근 한국방문의 해를 알리고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한국홍보 사절단 출정식을 갖고, 오는 8월 22일까지 유럽 6개국을 돌며 홍보활동을 펼친다.

▲趙政男(67년 工大卒·SK텔레콤 부회장)=지난 7월 27일 한국 사랑의 집 짓기운동 연합회에 성금 1억 4천만원을 전

달함.

▲朴哲圭(67년 醫大卒·모교 성형외과학교실 교수·대한성형외과학회 회장)=최근 2002년 4월 24~26일 서울에서 제6차 한·일 성형외과학회를 개최기로 결정함.

▲朴容熙(68년 醫大卒·모교 병원장)=지난 7월 26일 전남 여수에 있는 성심종합병원과 진료·의료 기술·정보 지원 등 협력협약을 체결함.

▲鄭煥坤(68년 保大院卒·송원대 교수·美뉴욕과학 학술원 회원)=최근 미국 머큐스 출판재단이 발행한 세계인명전기 연감(제18집, 제19집)과 세계과학기술인명 전기연감(제6집)에 등재됨

▲李永來(70년 農大卒·한국4-H본부 회장)=지난 7월 25~28일 이천 덕평수련원에서 전국 회원과 지도교사 등을 대상으로 문화 탐방 활동을 실시함.

▲朴虎君(70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연구 원장)=지난 7월 12일 동덕여대 趙元英총장과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자료와 정보관련 장비 교환, 공동연구과제 도출 등을 골자로 한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함.

▲張明奉(72년 法大卒·국민대 북한법제연구사업팀장)=지난 8월 2일 연변대에서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개방 관련 법제 동향」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가짐.

▲李範浩(74년 農大卒·도드람유통 사장)=최근 도드람유통에

서 생산하는 도드람포크가 KS마크 인증을 획득함.

▲張鉉明(76년 自然大卒·포항공대 교수)=최근 국제세라믹스 평의회(ICC)가 선정한 「세계 대표 과학자 32인」으로 9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됨.

▲全泰源(79년 師大卒·모교 체육교육과 교수)=지난 7월 6~8일 모교에서 「아시아·환태평양 운동과 스포츠 과학회」 창립총회와 학술대회를 가짐.

▲崔焄東(79년 醫大卒·김포병원장·김포시 의사회장)=지난 7월 10일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국장급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정신보건정책의 방향」에 대해 특강함.

▲李珉柱(80년 美大卒·모교 강사·한국화가)=지난 7월 25~31일 공평아트센터에서 「共鳴: 아버지」를 통한 나의

아니무스(Animus: 남성상) 발견」을 주제로 제16회 개인전을 가짐.

▲申熙泳(80년 醫大卒·모교 병원 어린이병원학교장)=지난 7월 13일 모교 병원 어린이병원 7층 어린이병원학교에서 개교 2주년 기념식을 개최함.

▲尹榮和(80년 音大卒·백제예대 교수)=지난 7월 27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열고,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슈베르트의 「소나타 Bb장조 D960」 등을 선보임.

▲李忠範(82년 法大卒·정해복지 이사장)=지난 7월 16일 베트남 호치민시 투덕지구 「베·한 정해기술학교」 제4기 졸업식을 개최함. 「베·한 정해기술학교」는 지난 1996년 11월 베트남 내 한인 2세 및 불우청소년, 장애인들을 위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설립됨.

▲陳銀淑(85년 音大卒·작곡가)=지난 7월 3일 독일 도이체 심포니오케스트라의 초빙작곡가에 선임됨.

▲申惠晶(86년 音大卒·피아니



스트)=지난 7월 30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라모, 베토벤, 슈만, 코플랜드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독주회를 가짐.

▲李庸中(93년 行大院卒)=지난 6월 7일 네덜란드 Erasmus대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법학박사 학위(국제법)



를 받음.

▲趙亮鎬(29기 AMP·대한항공 회장·21세기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지난 7월 11일 서소문 KAL빌딩에서 서울·인천·제주지역의 소년소녀가장 고교생 90명에게 장학금 1백만원씩을 전달함.

▲金澈運(33기 AMP·충효예실 천운동본부 총재)=지난 6월 29일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충효예실천 문화시민운동



결의대회를 가짐.

▲朴源弘(40기 AMP·국회의원)=지난 7월 9~18일 美의회 초청으로 한미의원외교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후 美국무성·국방성을 방문, 관계자와 면담함.

▲李璉鍾(43기 AMP·두리비전 대표)=최근 영사기 주사속도를 4배 높여 대형 화면일수록 잘 드러나 보이던 주사선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스캔라인 쿼드러플(Scan Line Quadruple)을 개발함.

▲河成源(45기 AMP·서울팝스 오케스트라 지휘자)=지난 7월 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창단 13주년 기념 음악회」를 가짐.

▲禹旻仙(1기 SGS·신안건설산업 회장·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장·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동창회장)=지난 6월 28일 여의도 주택회관에서 「2001년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 전달 기념식」을 개최함.

▲朴尙東(2기 EPHPM·동서한방병원장·보건 의료정책 최고 관리자과정 동창회장)=지난 7월 6일 경희대 법무대학원



세미나에서 「성인병 예방과 식생활」이란 주제로 강연했으며, 14일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함.

(정리=安興燮기자)

新刊

■ 이를 수 없는 誓願

—孫章純 著



한양대 불어불문학과 교수를 역임한 원로작가 孫章純(58년 文理大卒) 동문의 칼럼집.

여성문학과 페미니즘의 차이,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로 가자, 정치 문화와 언론과의 함수관계, 정치인들의 보상 의식 등 문학, 문화, 정치분야의 글과 더불어 자전적 에세이 등 80여 편을 담았다. <도서출판 문화공간·값12,000원>

■ 바람난 솜사탕

—鄭東哲 著



한국임상성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鄭東哲(60년 醫大卒·정동철

신경정신과 원장)동문이 상담을 바탕으로 성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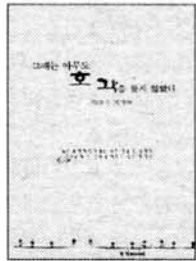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에 대한 남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비아그라 인생」을 비롯해 1백

여 편의 현대인의 정신건강과 건전한 성문화에 대해 설명했다. <퍼넌스·값13,000원>

■ 그때는 아무도

호각을 불지 않았다

—李彰國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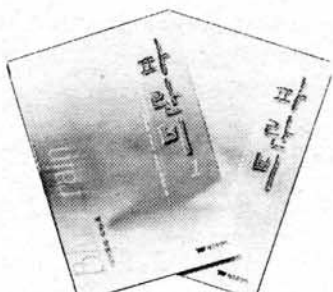


중앙대 영어교육과 교수인 李彰國(64년 師大卒·한국밀턴학회 회장)동문의 두 번째 수필집.

첫 수필집 「다시 한번 강가에 서다」에 수록되지 못했던 글과 새로 쓴 몇 편의 글을 모아 엮었다. 「공휴일 출근자」, 「정년퇴직」, 「늑대의 어려움」 등과 같이 요즘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36편을 수록했다. 또한 감성보다는 이성에 호소하는 논리적인 글도 여러 편을 실었다. <드림미디어·값7,800원>

■ 파란비 1-2

—朴鍾圭 著



종합광고기획사인 폴리곤 커

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고 있는 朴鍾圭(73년 美大卒·경인여대 컴퓨터정보디자인학부 겸임교수)동문이 「주말마잘」에 이어 두 번째 장편소설을 펴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운동권 여인으로 잘못 오인돼 처참한 죽임을 당한 김세희라는 여대생이 23년이 지난 오늘에 나타나, 김영준이라는 옛 연인의 의식을 조정해 그녀의 한 풀이를 해나가는 이야기로 전개된다. <태웅출판사·각권 값7,500원>

■ 살림의 논리

—張宅熙 著



한국철도차량(주) 생산기술팀 차장인 張宅熙(83년 工大卒) 동문이 살림(죽음의 반대)운동을 벌이며, 여러 잡지에 발표해온 글을 모아 묶은 것.

쓰레기는 없다, 덜 쓰고 덜 버리며 사는 기쁨, 바르게 먹으면 세상의 병이 낫는다, 생태적 위기의 인식과 원불교 환경운동의 방향 모색, 먹는 것에 대한 잡념, 쫓내기 살림꾼의 기도 등을 담았다. <녹색평론사·값7,000원>

■ 100억 연봉 CEO

—曹永卓 著

금호그룹에서 구매, 영업, 기



획, 회계 등의 계열사업무와 그룹의 미래기획단, 회장부속실 기획조정팀 근무를 통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지닌 曹永卓(89년 經營大卒·휴넷 대표이사)동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최고경영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기술했다.

부록으로 차세대 비즈니스 리더에게 권하는 101권의 책 목록을 첨부했다. <휴넷·값10,000원>

■ 神은 다시

손을 잡아주셨다

—서울사대여자기독동문모임



모교 사범대학 여자기독동문회 회원인 趙義淑, 金惠卿, 李相姬, 崔淑姬, 高蕙蘭, 金榮義, 金鍾順, 金海玉, 曹恩淑, 李貞姬, 崔芳枝동문 등이 6~7년에 걸쳐 모은 6·25전쟁 이야기

집. 한 시대를 마무리한다는 뜻에서 현대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프고 처참했던 전쟁에 대해 실제 경험한 세대의 증언으로 꾸며졌다. <비매품>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1년 4월 20일~2001년 7월 7일·一般: 2001년 4월 23일~2001년 7월 13일〉

관악회

▲이 사 朴明潤=30만원

평생회비

▲김양수(90년 藥大卒)=20만원
▲김택현(69년 農大卒)=20만원
▲마선일(54년 工大卒)=20만원
▲송호열(83년 師大卒)=20만원
▲신근식(70년 工大卒)=20만원
▲이재한(66년 藥大卒)=20만원
▲이형기(70년 行大院卒)=20만원
▲조성환(AMP 48기)=20만원

이 사

◇人文大學

▲정세혁78

◇社會科學大學

▲김민석89 ▲김성호85 ▲유일호81

◇家政大學

▲김구자64 ▲박금옥72 ▲서병숙69
▲유영주61 ▲정하진61

◇看護大學

▲김매자64 ▲박영숙69

◇經營大學

▲정찬우76

◇工科大學

▲강명순46 ▲강부건69 ▲강일구64
▲고인석64 ▲고재웅56 ▲구광서68
▲권기안57 ▲김경석70 ▲김광모66
▲김기정68 ▲김기협71 ▲김동진73
▲김문경71 ▲김상연51 ▲김석수77

▲김종찬71 ▲김주호58 ▲김진만58
▲김창익60 ▲김채원67 ▲김현원75
▲남정현61 ▲노태욱73 ▲박규원73
▲박덕철61 ▲박동서65 ▲박상철69
▲박용승58 ▲박준형74 ▲박찬정77
▲박태원49 ▲부대진63 ▲서정욱57
▲성백전56 ▲손 욱67 ▲손동준66
▲송기덕57 ▲송종석55 ▲심창생64
▲안재휴56 ▲양영일72 ▲양종식72
▲엄익준73 ▲오 명66 ▲오명환65
▲오성환63 ▲오승환71 ▲오창석50
▲우무상65 ▲원준희58 ▲유용하66
▲유인영56 ▲윤봉순58 ▲윤석열79
▲이범호58 ▲이선우59 ▲이선일65
▲이성규64 ▲이세기57 ▲이순종58
▲이정인63 ▲이종각48 ▲이준의64
▲이중재71 ▲이창호61 ▲이충구67
▲이충웅58 ▲이훈순56 ▲이희종57
▲임 회64 ▲임길진69 ▲장하린60
▲장희익72 ▲전경수71 ▲정충시76
▲조규대59 ▲조남혁61 ▲조선희56
▲조연제65 ▲조영래71 ▲조충희70
▲지철근51 ▲진상범69 ▲최관영65
▲최선주63 ▲최영식54 ▲최용일67
▲최정욱56 ▲표삼수74 ▲하현성76
▲한상준67 ▲한형수64 ▲함경호60
▲허영우52 ▲홍익석87 ▲황 현76

◇農科大學

▲김동암56 ▲김상국56 ▲김시경58
▲김영철69 ▲김주형73 ▲박 준73
▲박래경57 ▲박순직71 ▲박양자64
▲박정수69 ▲신한풍63 ▲심재익63
▲안재숙53 ▲안종운73 ▲유병세55
▲유회기49 ▲윤여창57 ▲이규재55
▲이득룡56 ▲이병일63 ▲이선진73
▲정창주57 ▲정하원63 ▲최원규72
▲최찬식62 ▲홍순홍64 ▲황경구61

◇文理科大學

▲강일규67 ▲고홍길66 ▲권월순71

▲김경재64 ▲김규상57 ▲김덕룡61
▲김명석72 ▲김선길53 ▲김성열48
▲김용언65 ▲김운태48 ▲김의경60
▲김철용59 ▲김호준65 ▲김희준65
▲남상진49 ▲노규래65 ▲박병언65
▲박종세66 ▲박종오60 ▲박지용49
▲박춘호59 ▲서재만63 ▲신우식57
▲오영일65 ▲원용대53 ▲유양수62
▲윤 식64 ▲윤명중57 ▲윤석현49
▲이광찬62 ▲이광희63 ▲이근무60
▲이기화63 ▲이남기55 ▲이두호64
▲이병재64 ▲이성해65 ▲이연희55
▲이원홍52 ▲이주전53 ▲장희익61
▲전중수56 ▲정문모64 ▲정양모58
▲진홍순74 ▲차홍봉69 ▲채희완74
▲최 환65 ▲현소환61 ▲홍두표61

◇美術大學

▲민철홍58 ▲황창배70

◇法科大學

▲강구현77 ▲강순걸58 ▲강영규52
▲강용구56 ▲강현중66 ▲강홍석64
▲경종철64 ▲곽노준78 ▲권순엽80
▲권오윤60 ▲권재진76 ▲권혁재64
▲김기춘62 ▲김길영55 ▲김덕영64
▲김동원75 ▲김동호61 ▲김명윤46
▲김명진78 ▲김문환69 ▲김병윤72
▲김상훈65 ▲김상희73 ▲김석영55
▲김세훈58 ▲김신태62 ▲김영수64
▲김영훈60 ▲김예환49 ▲김용철50
▲김응렬63 ▲김인환60 ▲김일권68
▲김일천69 ▲김재규53 ▲김종철60
▲김종호59 ▲김종환72 ▲김진우56
▲김진호61 ▲김창균61 ▲김창복55
▲김태현50 ▲김태훈72 ▲김택수61
▲김평우67 ▲김학용60 ▲김홍현71
▲김효영50 ▲남 진65 ▲노명준61
▲문영극69 ▲민수명64 ▲박 만74
▲박상천62 ▲박재경61 ▲박주선74
▲박준서64 ▲서돈양60 ▲석광현79

▲송준채68 ▲신명균66 ▲신창동51
▲심연택75 ▲안성철63 ▲양희종72
▲오세희62 ▲오형환69 ▲우의형70
▲유 훈54 ▲유명건70 ▲유시권63
▲유시권63 ▲유재웅63 ▲유홍수65
▲윤동민67 ▲윤동윤61 ▲이대영62
▲이문재65 ▲이병석68 ▲이상룡71
▲이영의65 ▲이용훈63 ▲이인상64
▲이종민65 ▲이종순61 ▲이창원60
▲이천수65 ▲이태창65 ▲이희영57
▲이희규49 ▲임상현63 ▲임서빈55
▲임홍빈56 ▲장동완64 ▲장준철71
▲장준호77 ▲전윤철65 ▲정극수59
▲정문화65 ▲정은구64 ▲조동원58
▲조동주57 ▲조상훈71 ▲조순형64
▲조승현72 ▲주성민73 ▲최동규61
▲최두형55 ▲최상태64 ▲최종립60
▲한기선60 ▲한영석61 ▲함정호57
▲허남훈62 ▲현경대64 ▲현취남63
▲황경진56 ▲황병인58 ▲황영호73

◇師範大學

▲강규석62 ▲강병주60 ▲김경자62
▲김대식61 ▲김영근72 ▲김영진58
▲김찬균58 ▲김충언63 ▲목창수73
▲문상호55 ▲민흥기63 ▲박병도56
▲박봉상63 ▲박종국71 ▲박희숙60
▲배구섭55 ▲오경환72 ▲이노연62
▲이석조59 ▲이영수65 ▲이원우69
▲이흥기66 ▲장성원61 ▲정문성76
▲정한진61 ▲주일영49 ▲최태상57

◇商科大學

▲강용수75 ▲구영치66 ▲구자홍72
▲김덕기56 ▲김덕명66 ▲김동성75
▲김선태66 ▲김시담62 ▲김용기62
▲김용요59 ▲김웅세57 ▲김웅태57
▲김정현58 ▲김종대41 ▲김중수73
▲김진범64 ▲김천옥52 ▲김현배57
▲김형만56 ▲노인환58 ▲민병태64
▲민상기70 ▲박 간76 ▲박대평59

▲박명규56 ▲박병준57 ▲박영주63
▲박종수70 ▲박종한53 ▲박태영66
▲백승조57 ▲석학진64 ▲손기혁64
▲손병두64 ▲손상모57 ▲송교선75
▲송국현62 ▲송용상60 ▲심상은64
▲안웅식66 ▲안태호53 ▲양재수65
▲여현동62 ▲오덕균57 ▲위기철66
▲유명집59 ▲유병무71 ▲유원영63
▲유장희63 ▲윤복현65 ▲윤문환56
▲이계문77 ▲이관규65 ▲이구수63
▲이대영72 ▲이상득61 ▲이상선63
▲이상익66 ▲이세근70 ▲이영택69
▲이유현74 ▲이인원68 ▲이재태69
▲이진우65 ▲이향철58 ▲임동승62
▲임재수55 ▲임종수65 ▲장덕신75
▲장만희61 ▲전용수66 ▲전재희58
▲정덕용63 ▲정상진57 ▲정찬준55
▲조갑주63 ▲조덕찬57 ▲최광현67
▲최남해56 ▲최성태66 ▲최해은56
▲최홍락61 ▲홍승희41

◇獸醫科大學

▲김인호57 ▲김진구67 ▲나기식58
▲박근식57 ▲윤화영83 ▲임영철78
▲정대연59

◇藥學大學

▲김광순63 ▲김규호72 ▲김명수75
▲김장호69 ▲김종수58 ▲김한길63
▲박만기63 ▲박시우73 ▲오성환64
▲우중균65 ▲윤광철61 ▲이강추58
▲이계준66 ▲이광수69 ▲이상섭54
▲이창기59 ▲이필량57 ▲장일무66
▲조내규62 ▲최창신55 ▲한규홍68
▲한상후68 ▲홍순억58

◇音樂大學

▲김정자64 ▲김혜경54

◇醫科大學

▲기의식48 ▲김곤식59 ▲김귀윤78

▲김동은⁵³ ▲김승욱⁵⁵ ▲김종환⁵⁶
▲김홍기⁴⁴ ▲동영송⁵⁵ ▲문성무⁶⁶
▲박경호⁵¹ ▲박귀원⁷² ▲박상철⁷³
▲박신근⁶⁸ ▲박용재⁷¹ ▲박지흥⁷⁵
▲박창서⁷⁷ ▲선우대환⁷⁷ ▲손근찬⁵⁸
▲송희승⁵⁹ ▲심달섭⁵¹ ▲오경균⁷³
▲웅상길⁶⁴ ▲위정일⁶⁹ ▲유명철⁶⁷
▲유형래⁶⁰ ▲유형래⁶⁰ ▲이광호⁷³
▲이명근⁷⁴ ▲이민호⁷³ ▲이상일⁷³
▲이수철⁷⁸ ▲이정균⁶² ▲이종찬⁵³
▲이종대⁷¹ ▲이진용⁶³ ▲이학중⁵⁹
▲임한중⁵⁷ ▲조경철⁵⁹ ▲조명하⁵⁹
▲조병윤⁷⁰ ▲조영희⁶² ▲최경진⁷⁴
▲최병휘⁷⁹ ▲최성배⁶¹ ▲하재동⁵⁷
▲한만청⁵⁹ ▲한만희⁶³ ▲한명렬⁵¹
▲한예택⁶⁷ ▲홍성태⁷⁹ ▲홍영식⁶⁷
▲황효섭⁶⁴

◇齒科大學

▲강성현⁷⁵ ▲구창수⁵⁶ ▲김문형⁶⁶
▲김상욱⁷³ ▲김진일⁶² ▲김성래⁵⁷
▲김여미⁸⁰ ▲김평일⁷² ▲남동석⁶⁵
▲노철진⁵⁹ ▲민병일⁵⁵ ▲박재중⁵⁵
▲박찬유⁷¹ ▲배유홍⁵⁶ ▲백동준⁶²
▲변석두⁵⁷ ▲서영수⁷³ ▲신일규⁷¹
▲신현철⁶⁰ ▲안효일⁶² ▲오기돈⁶⁷
▲유광길⁶⁹ ▲이금룡⁶⁴ ▲이병태⁶⁷
▲이승환⁶⁶ ▲이시우⁶⁵ ▲이윤상⁶⁵
▲이종률⁶⁵ ▲임성수⁶⁶ ▲장상현⁶⁵
▲장섭창⁷⁷ ▲정현주⁸¹ ▲조성직⁵⁸
▲주낙림⁶⁰ ▲하상원⁷⁰ ▲한동환⁵⁸
▲홍예표⁷¹

◇大學院

▲백 철⁷⁸ ▲이남기⁷⁶ ▲임대운⁸⁷
▲정상철⁷⁹

◇經營大學院

▲김선대⁷² ▲박원봉⁶⁸ ▲안대륜⁶⁷
▲이상락⁶⁷

◇敎育大學院

▲송향섭⁶⁶

◇保健大學院

▲박창진⁷² ▲윤용길⁷⁰ ▲이시영⁷⁰
▲정영채⁶¹ ▲조경종⁷⁰

◇司法大學院

▲김기수⁶⁵ ▲이원섭⁶⁴ ▲정경식⁶⁵

◇新聞大學院

▲이근수⁶⁹

◇行政大學院

▲김상국⁷² ▲김영화⁷⁰ ▲김한근⁷¹
▲배문환⁶⁵ ▲양석호⁶⁷ ▲오자복⁸²
▲이효계⁶⁸ ▲조한유⁸⁰ ▲황인성⁶⁵

◇環境大學院

▲박형석⁷⁴

◇국가정책과정

▲박명환⁴³ ▲송영진³⁶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정의화³

일 반

◇人文大學

▲공영화⁷⁹ ▲권기환⁸⁰ ▲권인한⁶⁵
▲권태인⁷⁸ ▲김기모⁸⁸ ▲김명환⁸¹
▲김상호⁸⁵ ▲김영현⁸⁶ ▲김인배⁷⁹
▲김종원⁸³ ▲김장민⁸⁸ ▲김창희⁸¹
▲노태성⁹¹ ▲문안나⁸⁶ ▲박정아⁹⁰
▲박진형⁹⁸ ▲백복실⁷⁸ ▲서태영⁷⁹
▲손주은⁸⁷ ▲송기국⁸⁰ ▲신인수⁸⁵
▲안종홍⁹⁵ ▲오 준⁷⁸ ▲오병갑⁸⁰
▲오태석⁸⁴ ▲우석균⁸⁸ ▲원종래⁷⁷
▲위정일⁸⁹ ▲유동석⁸¹ ▲윤상익⁸⁵
▲윤찬원⁷⁸ ▲이대영⁸⁵ ▲이동근⁸⁰
▲이명찬⁸⁵ ▲이정웅⁸¹ ▲이종은⁹⁹
▲이주환⁸⁸ ▲이지홍⁹¹ ▲이한목⁷⁶
▲이항수⁸⁹ ▲임운봉⁹⁹ ▲정규용⁹⁰
▲정두영⁸⁸ ▲정병일⁷⁸ ▲정형일⁸⁴
▲조흥욱⁷⁷ ▲최윤호⁹² ▲최익환⁹⁶
▲최재현⁹³

◇社會科學大學

▲강경희⁸⁸ ▲강병일⁸⁴ ▲강영진⁸⁴
▲강종표⁸³ ▲고홍석⁹⁷ ▲권태한⁸⁰
▲김관호⁸⁵ ▲김병룡⁷⁷ ▲김석구⁸⁶
▲김용구⁸¹ ▲김익성⁷⁹ ▲김지민⁸⁵
▲김진희⁸⁷ ▲김창선⁹¹ ▲김현종⁹³

▲김형렬⁸² ▲김형일⁸⁷ ▲김형태⁹⁷
▲남상열⁸³ ▲남인용⁹⁰ ▲노택선⁸³
▲류시호⁸⁸ ▲박광수⁸⁸ ▲박호성⁸²
▲변동희⁷⁷ ▲손광락⁷⁸ ▲송경모⁸⁶
▲송남섭⁸⁶ ▲송상우⁹⁰ ▲송상종⁸⁵
▲송현종⁸⁷ ▲신태호⁹⁰ ▲신희창⁷⁶
▲안창모⁸⁰ ▲연승호⁹¹ ▲오대현⁹⁶
▲우상욱⁹⁶ ▲유동근⁹⁷ ▲이석원⁸⁰
▲이수천⁹⁷ ▲이승훈⁷⁸ ▲이정만⁸⁰
▲이정운⁹⁵ ▲이창구⁷⁷ ▲이창수⁸⁹
▲이충근⁷⁸ ▲임성만⁸⁵ ▲임재금⁹⁸
▲장 광⁷⁷ ▲장윤종⁸² ▲전재성⁸⁷
▲정경민⁸⁸ ▲정우훈⁸⁹ ▲정은호⁹⁰
▲정택환⁸⁴ ▲조병철⁷⁷ ▲최원범⁹²
▲최원식⁸⁷ ▲최준애⁸⁶ ▲하병기⁸⁰
▲황민연⁷⁸ ▲황영수⁸¹

◇自然科學大學

▲김 준⁸⁶ ▲김남수⁷⁷ ▲김병수⁷⁸
▲김승우⁸⁹ ▲김찬중⁹⁵ ▲김태진⁷⁷
▲문명호⁸⁴ ▲박명진⁷⁷ ▲박명호⁸⁰
▲박명홍⁷⁷ ▲박윤경⁸⁷ ▲박충원⁹¹
▲백승민⁸⁰ ▲손병기⁷⁸ ▲신영용⁹⁰
▲안주홍⁸⁴ ▲오병두⁸¹ ▲유석동⁹⁰
▲이기형⁸⁷ ▲이상범⁸⁴ ▲이순열⁸³
▲이용학⁷⁸ ▲이운권⁹⁶ ▲이재열⁸¹
▲이지희⁸⁸ ▲이창욱⁸⁴ ▲장경우⁸²
▲장승혁⁹³ ▲장영록⁸⁶ ▲장진호⁸³
▲정일호⁸¹ ▲채광수⁹³ ▲최은영⁹⁴
▲최익규⁹⁴ ▲홍기표⁸⁹ ▲황성주⁹²

◇家政大學

▲경희호⁶⁴ ▲고희정⁹¹ ▲권순자⁸¹
▲김복희⁸³ ▲김선미⁷⁹ ▲김성은⁸⁷
▲김성진⁷³ ▲김수향⁷² ▲김순오⁵⁹
▲김순오⁵⁹ ▲김은희⁷³ ▲김정자⁶⁷
▲김초일⁷⁸ ▲김태현⁸⁹ ▲김향숙⁷⁵
▲박지영⁹¹ ▲방형애⁸⁷ ▲성홍경⁶¹
▲소윤희⁷⁹ ▲안영희⁶¹ ▲엄윤경⁸²
▲오경숙⁸² ▲오광숙⁶⁴ ▲오명숙⁷⁴
▲우종란⁷³ ▲원명심⁷⁹ ▲유정자⁵⁹
▲이난형⁸⁷ ▲이미영⁸⁷ ▲이봉옥⁶⁰
▲이효진⁸⁴ ▲정수혜⁶³ ▲조명희⁷¹
▲조혜옥⁶³ ▲조혜자⁶⁴ ▲홍윤정⁹⁵
▲황인경⁷⁴

◇看護大學

▲구혜정⁷⁹ ▲권연희⁸⁵ ▲권오경⁵⁹
▲김경화⁸⁷ ▲김시정⁹⁹ ▲김지현⁹⁴

▲박상련⁷² ▲박은선⁵⁷ ▲소형선⁷⁷
▲신현숙⁷⁹ ▲심중섭⁷⁴ ▲안영숙⁷³
▲원윤남⁵⁷ ▲유문자⁸⁸ ▲유재희⁷⁰
▲이윤경⁹⁷ ▲이홍자⁸⁰ ▲이화자⁶⁶
▲임숙빈⁷⁹ ▲장정화⁷⁶ ▲전귀남⁸⁷
▲정숙영⁶⁹ ▲정은자⁸⁶ ▲조결자⁶⁶
▲조문숙⁸⁴ ▲조인애⁷¹ ▲채현숙⁸⁶
▲천성혜⁸⁸ ▲최정명⁸³

◇經營大學

▲강문중⁸³ ▲강상원⁹⁵ ▲고종권⁸⁵
▲권용기⁷⁹ ▲김 일⁹³ ▲김경록⁹⁴
▲김동환⁹⁶ ▲김문수⁷⁶ ▲김상욱⁹¹
▲김순영⁸³ ▲김영대⁹⁴ ▲김윤수⁸⁵
▲박진석⁹⁷ ▲박찬수⁸⁵ ▲배택영⁸¹
▲서승현⁸⁹ ▲서학수⁸⁸ ▲성락현⁸¹
▲송 용⁹³ ▲양기봉⁷⁹ ▲오민철⁹⁰
▲왕성환⁹³ ▲윤재봉⁷⁷ ▲윤대식⁹¹
▲은범수⁸⁰ ▲이대찬⁸⁶ ▲이승학⁹⁰
▲이신철⁸⁶ ▲이원기⁸³ ▲이재욱⁹⁴
▲이정원⁹¹ ▲이정은⁹⁷ ▲이종명⁸³
▲이태영⁸⁵ ▲이호창⁸⁵ ▲임홍렬⁸⁷
▲정이진⁹⁴ ▲조도근⁹¹ ▲조영국⁸⁸
▲천한우⁸³ ▲최병호⁸⁷ ▲최석원⁷⁷
▲최재후⁸⁰ ▲하태형⁸² ▲한상설⁷⁶
▲홍성진⁸⁸ ▲황동철⁷⁹ ▲황수연⁷⁹

◇工科大學

▲강대신⁷² ▲강상근⁶⁹ ▲강석춘⁷⁶
▲강성춘⁷⁷ ▲강수민⁹⁸ ▲강승호⁸⁸
▲강신원⁷⁹ ▲강신원⁷⁹ ▲강현태⁷³
▲공영민⁹⁴ ▲곽병현⁷¹ ▲곽삼진⁶⁶
▲곽희로⁶⁷ ▲권 면⁸³ ▲권봉일⁷³
▲권오양⁷⁶ ▲권용수⁸³ ▲권창현⁷⁷
▲김현권⁸⁰ ▲김건호⁹⁶ ▲김경수⁸¹
▲김경화⁸⁹ ▲김관석⁷⁸ ▲김관형⁸⁷
▲김광길⁶⁶ ▲김광수⁷⁴ ▲김광식⁶¹
▲김광호⁷⁷ ▲김규남⁵¹ ▲김극수⁷⁸
▲김기원⁶³ ▲김대식⁸² ▲김대하⁷⁴
▲김덕중⁷⁶ ▲김동기⁸¹ ▲김동기⁹⁷
▲김동상⁵⁹ ▲김동필⁸² ▲김동하⁹¹
▲김두천⁶⁷ ▲김두형⁸² ▲김득중⁷⁹
▲김명석⁷⁹ ▲김방광⁶⁶ ▲김병기⁶⁹
▲김병남⁷⁷ ▲김병제⁶⁶ ▲김상국⁷⁸
▲김상범⁸⁶ ▲김석중⁶⁹ ▲김성기⁸⁴
▲김성민⁹⁶ ▲김성섭⁷⁹ ▲김성인⁷³
▲김성환⁸⁸ ▲김수경⁷² ▲김순일⁷¹
▲김승근⁵⁵ ▲김승일⁷⁴ ▲김안순⁶⁸
▲김양일⁶⁰ ▲김영규⁸⁰ ▲김영근⁸⁵

▲김영생⁴⁶ ▲김영조⁵¹ ▲김영진⁸⁰
▲김영택⁶² ▲김영표⁷⁵ ▲김영호⁸⁰
▲김영환⁹⁰ ▲김영환⁹⁴ ▲김용철⁶²
▲김용환⁶⁹ ▲김우식⁸⁴ ▲김우재⁹⁷
▲김유환⁶⁶ ▲김윤제⁶⁶ ▲김익석⁸⁸
▲김익수⁵⁶ ▲김재곤⁷⁷ ▲김재원⁶¹
▲김재학⁹⁴ ▲김재환⁵⁸ ▲김정근⁶⁵
▲김정수⁷¹ ▲김정순⁷⁹ ▲김종식⁷⁷
▲김종열⁸³ ▲김종태⁵⁴ ▲김종하⁸⁶
▲김종환⁶⁷ ▲김종현⁶¹ ▲김주택⁷¹
▲김진무⁶⁹ ▲김진윤⁷⁹ ▲김진주⁶⁴
▲김철빈⁷¹ ▲김철순⁵⁷ ▲김철화⁷³
▲김택영⁸⁶ ▲김학기⁵⁴ ▲김학용⁹¹
▲김학준⁷² ▲김학천⁷² ▲김현수⁸⁶
▲김현우⁷⁸ ▲김형준⁹² ▲김형택⁸³
▲김홍곤⁸⁰ ▲김홍균⁸⁵ ▲김홍표⁸²
▲김희배⁷⁰ ▲김효섭⁸¹ ▲김희준⁷¹
▲남장수⁶⁸ ▲남창희⁶⁶ ▲동방창⁷⁹
▲류명선⁸⁸ ▲류중석⁸¹ ▲문규철⁷³
▲문길구⁶⁹ ▲문동민⁶¹ ▲문성준⁹³
▲문영학⁷⁰ ▲문일경⁸⁴ ▲문제길⁵⁶
▲문창호⁷⁸ ▲문홍길⁸⁰ ▲민경식⁷¹
▲민성기⁷¹ ▲박 순⁷⁸ ▲박 영⁹⁸
▲박경영⁷⁹ ▲박광호⁷⁷ ▲박광호⁷⁷
▲박구원⁷³ ▲박규원⁷⁹ ▲박규찬⁸³
▲박대복⁶⁷ ▲박대휘⁷⁹ ▲박민철⁵²
▲박봉규⁷¹ ▲박석수⁶³ ▲박성대⁵⁸
▲박승규⁸⁶ ▲박영탁⁷⁵ ▲박용수⁸⁷
▲박원장⁷⁴ ▲박은미⁸⁶ ▲박의동⁷⁷
▲박인규⁷⁶ ▲박재룡⁷² ▲박재만⁶⁴
▲박정렬⁹⁸ ▲박정석⁷⁷ ▲박정훈⁹⁵
▲박종길⁶⁹ ▲박현구⁷⁸ ▲박현민⁸⁶
▲박현우⁵⁷ ▲박홍균⁷⁸ ▲방규선⁸⁶
▲방국렬⁶⁴ ▲방기범⁸⁸ ▲방병선⁸³
▲배승환⁵³ ▲배인호⁹¹ ▲배재영⁸⁵
▲배재흥⁷⁷ ▲배종호⁷⁵ ▲배형호⁹⁹
▲백승윤⁸⁹ ▲백윤홍⁸⁸ ▲변재환⁶⁷
▲변형직⁵¹ ▲서균렬⁷⁸ ▲서두석⁷⁹
▲서명우⁹¹ ▲서연진⁹⁷ ▲서영길⁵⁹
▲서영치⁶⁷ ▲서일홍⁷⁷ ▲서정렬⁸⁷
▲서정만⁶⁸ ▲선 용⁶⁶ ▲선석문⁷²
▲설재훈⁷⁸ ▲성낙준⁸¹ ▲성낙진⁶⁰
▲손영란⁹⁵ ▲손혜환⁵⁹ ▲송경석⁸²
▲송광호⁸⁸ ▲송근용⁸⁵ ▲송기태⁹⁴
▲송동섭⁹⁸ ▲송배원⁷⁹ ▲송수영⁵⁵
▲송승훈⁸⁸ ▲송영두⁶³ ▲송재도⁸⁹
▲송재준⁷⁰ ▲송주인⁵⁵ ▲송주철⁶¹
▲송진해⁷² ▲신갑식⁶² ▲신선호⁶⁶
▲신순철⁸³ ▲신원기⁷⁰ ▲신원용⁶⁵

▲신중호76 ▲신현섭77 ▲신형근90
▲신형철85 ▲신호성98 ▲심명필73
▲심용기97 ▲심원관60 ▲심재한57
▲심홍주48 ▲안규종82 ▲안덕주61
▲안면섭62 ▲안상록75 ▲안우영79
▲안인선58 ▲안재영66 ▲안재우95
▲안진홍62 ▲안태환79 ▲안호열67
▲안홍섭79 ▲양대준99 ▲양세학61
▲양영렬90 ▲양운근83 ▲양지청81
▲양창국68 ▲염태석69 ▲오동규70
▲오동규70 ▲오서균67 ▲오세범76
▲오익환61 ▲오종석87 ▲오치남71
▲왕동근67 ▲왕환석88 ▲원중호98
▲유건선77 ▲유건준70 ▲유동원98
▲유승문82 ▲유용주97 ▲유용석72
▲유원상42 ▲유태규82 ▲유광언68
▲윤봉환68 ▲윤수호89 ▲윤승하79
▲윤용근65 ▲윤우현79 ▲윤재호78
▲윤종섭88 ▲윤찬영98 ▲유희태98
▲은창수85 ▲이경기59 ▲이규종84
▲이근배71 ▲이기호83 ▲이낙주51
▲이대영87 ▲이대희64 ▲이동성63
▲이동진77 ▲이동철71 ▲이두원66
▲이명학77 ▲이민규68 ▲이복춘69
▲이삼형49 ▲이상영77 ▲이상현95
▲이상화94 ▲이선계69 ▲이성래77
▲이성원79 ▲이성호85 ▲이승욱62
▲이승일68 ▲이영삼64 ▲이영섭66
▲이영호78 ▲이영희76 ▲이완태66
▲이용식72 ▲이원성81 ▲이응렬74
▲이의남69 ▲이인재71 ▲이재기72
▲이재일80 ▲이재현71 ▲이정목58
▲이정욱57 ▲이정웅63 ▲이종래61
▲이준엽99 ▲이중현88 ▲이진근41
▲이창대67 ▲이창수65 ▲이창재95
▲이창주80 ▲이창한80 ▲이채록84
▲이철진75 ▲이춘길81 ▲이필한73
▲이학렬78 ▲이한일88 ▲이해종79
▲이행선55 ▲이흥근69 ▲이환계76
▲인성남67 ▲임동조75 ▲임승욱79
▲임정렬92 ▲임채훈89 ▲임철웅70
▲임현구73 ▲임현태82 ▲장기철84
▲장기철84 ▲장봉식86 ▲장상귀90
▲장영엽96 ▲장용환73 ▲장재언68
▲장찬홍61 ▲장현구64 ▲장현봉60
▲장홍규58 ▲전상규92 ▲전중환57
▲전창선64 ▲전효택71 ▲정광진88
▲정구동67 ▲정규안72 ▲정대화84
▲정석현55 ▲정성목78 ▲정세학61
▲정연근60 ▲정우식84 ▲정운영77
▲정인수77 ▲정재길60 ▲정재준96
▲정지일87 ▲정찬영58 ▲정창우73
▲정해식65 ▲정화진89 ▲조규식72
▲조동영70 ▲조성호85 ▲조성호87
▲조순형72 ▲조원상84 ▲조인식99
▲조인준94 ▲조장희49 ▲조청원77
▲조현준75 ▲주성철74 ▲주영렬76
▲주홍수76 ▲지만식65 ▲진금택76
▲진명혁49 ▲진홍기63 ▲차재명78
▲채수운92 ▲채준현90 ▲채진석90
▲채희선73 ▲전동락80 ▲최광열67
▲최기철79 ▲최민호64 ▲최복철75
▲최상혁63 ▲최승주76 ▲최승철85
▲최영하69 ▲최예운89 ▲최재봉42
▲최정해90 ▲최정환98 ▲최종근69
▲최진엽63 ▲최훈준68 ▲태두호53
▲피정현78 ▲하선호74 ▲하순희85
▲하회두77 ▲한동환56 ▲한병익81
▲한송수85 ▲한승만98 ▲한정섭55
▲한준희70 ▲함정도75 ▲허 윤97
▲허 환93 ▲허수웅65 ▲허종성64
▲현재민68 ▲홍보기93 ▲홍성목58
▲홍성안73 ▲홍순일57 ▲홍순호92
▲홍안의67 ▲홍영진78 ▲홍왕표95
▲홍해남77 ▲홍희정96 ▲황귀남83

▲황규원71 ▲황규홍79 ▲황기현91
▲황봉동80 ▲황성우85 ▲황성태60
▲황윤식94

◇農科大學

▲감동근98 ▲강경원56 ▲강경원57
▲강장수69 ▲고경일65 ▲고영창80
▲고장원59 ▲국인석86 ▲권세훈69
▲권순국64 ▲김갑철72 ▲김공래86
▲김광배61 ▲김구용76 ▲김규래58
▲김남영84 ▲김대환85 ▲김두만56
▲김민수77 ▲김성자67 ▲김수영91
▲김영각54 ▲김영국60 ▲김영규55
▲김용구61 ▲김용섭78 ▲김인철87
▲김정구88 ▲김정목65 ▲김종국70
▲김종대79 ▲김종천57 ▲김진광63
▲김진구58 ▲김창호80 ▲김태수75
▲김태영86 ▲김현영73 ▲김희창82
▲남완우52 ▲노홍섭58 ▲민경태84
▲민영준53 ▲민옥기80 ▲박경제77
▲박명규57 ▲박영곤89 ▲박영기75
▲박용욱54 ▲박재욱65 ▲박종국63
▲박준걸78 ▲박창용59 ▲박창호62
▲박철웅95 ▲박치석71 ▲박현봉79
▲박홍목60 ▲박희구55 ▲반성환55
▲배기환49 ▲백운해82 ▲변영숙74
▲부경생64 ▲서승덕61 ▲서정선56
▲성용훈56 ▲손현수53 ▲송기연60
▲송정흠67 ▲송한용90 ▲신광식61
▲신대용57 ▲신서균64 ▲심성섭58
▲심의구55 ▲안용태56 ▲안원영59
▲오현우86 ▲오현준61 ▲원광식64
▲원용택57 ▲유상호97 ▲유운형75
▲유인호93 ▲유장렬72 ▲윤병일60
▲윤석호70 ▲윤여두71 ▲윤재수70
▲윤창원75 ▲윤호병72 ▲이강인90
▲이계은60 ▲이관희59 ▲이광웅68
▲이광호68 ▲이기복57 ▲이기종65
▲이대연76 ▲이덕립64 ▲이도경63
▲이동구73 ▲이동욱60 ▲이만복60
▲이명규73 ▲이상하62 ▲이상화78
▲이석기67 ▲이석주58 ▲이성복81
▲이성종67 ▲이성호75 ▲이성홍79
▲이수욱61 ▲이승구70 ▲이승일91
▲이용환75 ▲이우용55 ▲이우종85
▲이윤우57 ▲이재완75 ▲이재창63
▲이종호49 ▲이진희85 ▲이창구70
▲이철근76 ▲이태영55 ▲이태영55
▲이태종83 ▲이형주86 ▲이호준68
▲이홍석56 ▲이흥구58 ▲이희석61
▲이희영54 ▲임상봉86 ▲임장희96
▲장길평66 ▲장운룡55 ▲전계상58
▲정도섭63 ▲정병기57 ▲정선용63
▲정용규66 ▲정용화90 ▲정정갑66
▲정진근73 ▲정진욱60 ▲정진호49
▲정전용63 ▲정춘희63 ▲정현용69
▲조병국61 ▲조병진65 ▲조반행63
▲조성인84 ▲조성지56 ▲조성환56
▲조수경76 ▲조장호65 ▲조진환58
▲조태연85 ▲조현모76 ▲조희렬63
▲주승종91 ▲차봉기62 ▲채재전72
▲최경화68 ▲최덕순82 ▲최동환82
▲최봉서95 ▲최승호83 ▲최언호66
▲최영일56 ▲최재복54 ▲최주섭71
▲하평종66 ▲한관주60 ▲한화섭49
▲허주철87 ▲현정오70 ▲현정오70
▲홍동의89 ▲홍성하75 ▲홍승진86
▲홍종진64 ▲황 번79

◇文理科大學

▲고병관60 ▲고윤석54 ▲구맹희64
▲국채진61 ▲권병두72 ▲권순자59
▲김경환70 ▲김계란55 ▲김광우75
▲김광욱59 ▲김규원63 ▲김기영70
▲김기조55 ▲김리나64 ▲김만원69

▲김병휘72 ▲김상욱61 ▲김생기65
▲김성기65 ▲김세민75 ▲김수학57
▲김순호74 ▲김영국50 ▲김영일68
▲김옥선56 ▲김용호73 ▲김원봉52
▲김유석55 ▲김인철66 ▲김장년70
▲김장욱58 ▲김재민62 ▲김정식66
▲김제완58 ▲김종국71 ▲김중술61
▲김찬수64 ▲김재운56 ▲김태동66
▲김태수71 ▲김희준70 ▲나미례69
▲남궁연56 ▲맹선재56 ▲문양수63
▲민경덕63 ▲민동근50 ▲민석홍48
▲박남서72 ▲박대일69 ▲박명근56
▲박명기63 ▲박상우64 ▲박석홍67
▲박옥순63 ▲박원우54 ▲박일현52
▲박주기64 ▲방정조65 ▲배복남57
▲배태영72 ▲배태영72 ▲백동기50
▲변용진59 ▲변창애66 ▲성희웅69
▲손정규65 ▲송길상54 ▲송병섭66
▲송석훈65 ▲송용진72 ▲송인찬63
▲송창기62 ▲송태호72 ▲신대철74
▲신영근51 ▲신용대64 ▲신이현56
▲신진순74 ▲신현영70 ▲심사수60
▲안원태56 ▲안정수66 ▲안정길64
▲안현화56 ▲안희준67 ▲양은승57
▲양철주65 ▲엄수현64 ▲엄승섭61
▲오근영65 ▲오수국74 ▲오인환64
▲오임렬56 ▲오준석52 ▲우삼택72
▲우석주55 ▲유동진61 ▲유병길72
▲유인태74 ▲유재전61 ▲유진형56
▲유화선72 ▲윤규호64 ▲윤석구65
▲윤임구65 ▲윤정욱56 ▲이 랑64
▲이 순60 ▲이강승71 ▲이광호68
▲이규덕61 ▲이근호61 ▲이기남71
▲이길준66 ▲이달수48 ▲이대승71
▲이병준56 ▲이병혁71 ▲이병형71
▲이상철73 ▲이영록70 ▲이영석50
▲이영준72 ▲이우용68 ▲이원희59
▲이인기66 ▲이재형73 ▲이정길63
▲이정란63 ▲이정배62 ▲이정복67
▲이종건70 ▲이찬구62 ▲이창민66
▲이창훈51 ▲이춘재63 ▲이택주70
▲이해창67 ▲이현순60 ▲이흥성75
▲임광순72 ▲임채호64 ▲장종학63
▲전동성72 ▲전만수59 ▲전익우64
▲정기용59 ▲정달호71 ▲정무호65
▲정병해53 ▲정환규64 ▲정한택49
▲정해용54 ▲조건식75 ▲조기웅73
▲조모형61 ▲조용선60 ▲조용선60
▲조정재63 ▲조창화62 ▲조창환67
▲조한제74 ▲조호래67 ▲주석순52
▲추수길65 ▲주영돈64 ▲지주선58
▲차재억70 ▲채흥기75 ▲천정락73
▲최 진60 ▲최관행72 ▲최동환55
▲최태호70 ▲하이영53 ▲한기호61
▲한달웅63 ▲한석진57 ▲한성교58
▲한이석73 ▲한철하48 ▲허영욱63
▲홍경자65 ▲홍성훈61 ▲홍영남64
▲홍영백61 ▲황용수60 ▲황원의66
▲황윤석63 ▲황필래56

◇美術大學

▲강은혜96 ▲계동훈63 ▲구성호90
▲권경자69 ▲김규봉93 ▲김기미85
▲김덕용88 ▲김봉태61 ▲김숙경86
▲김영우56 ▲김영혜72 ▲김재운61
▲김형률89 ▲김형숙89 ▲박선후95
▲박승조82 ▲박은경78 ▲박정기64
▲방광일78 ▲심차순61 ▲안기순83
▲안혜원98 ▲양창보62 ▲염태정64
▲연경자63 ▲연정은88 ▲오경환63
▲유 환64 ▲윤경선69 ▲윤명노60
▲이계안64 ▲이규남86 ▲이문숙70
▲이상길90 ▲이상하90 ▲이선욱71
▲이선원79 ▲이철자65 ▲이영수99
▲이은화72 ▲이정은94 ▲이종목83

▲임명욱85 ▲임상진60 ▲임송자63
▲장민호93 ▲장체일84 ▲정옥란66
▲정치환64 ▲정택영60 ▲정희우97
▲조정애75 ▲차정아89 ▲최돈일91
▲최미정93 ▲최미정93 ▲최병삼61
▲최선동52 ▲최선배68 ▲최순규90
▲최애경60 ▲최연희72 ▲한계륜94
▲한영숙97 ▲현숙자60 ▲현지연97
▲홍상진90 ▲홍주옥99 ▲황영애71

◇法科大學

▲강기원69 ▲강신배56 ▲강홍구57
▲고창현88 ▲곽병진56 ▲곽윤직51
▲권대웅68 ▲금유식64 ▲김광주66
▲김규병75 ▲김기경90 ▲김기수51
▲김기정00 ▲김동완91 ▲김두환67
▲김복지54 ▲김상갑73 ▲김상구59
▲김상욱73 ▲김성수83 ▲김성철80
▲김순평65 ▲김시현83 ▲김연곤89
▲김영우60 ▲김용각43 ▲김용대83
▲김용래57 ▲김용환83 ▲김응조81
▲김익진90 ▲김재업63 ▲김재영88
▲김제완65 ▲김종윤75 ▲김진홍61
▲김찬식72 ▲김학재67 ▲김형진79
▲김호봉52 ▲노장기66 ▲도지훈56
▲명동성77 ▲문병호70 ▲문형배87
▲민영문76 ▲박노문70 ▲박민환70
▲박상일61 ▲박석주52 ▲박성민70
▲박양한64 ▲박장우70 ▲박종록71
▲박종우70 ▲박해봉87 ▲배달순57
▲백상현77 ▲변광호88 ▲변영훈81
▲서건익63 ▲서원우53 ▲서정찬86
▲석광세63 ▲성평문82 ▲성시웅81
▲손석주55 ▲송영식66 ▲송진원63
▲신명훈87 ▲신양호67 ▲신호철65
▲안대찬57 ▲안병만64 ▲안응선62
▲여훈구64 ▲염기창89 ▲오경락68
▲오동수43 ▲오석환55 ▲오시열80
▲유광현77 ▲유기홍64 ▲유병규87
▲유성욱92 ▲유영철64 ▲유재창72
▲유창수72 ▲유해돈61 ▲윤금중54
▲윤영미85 ▲윤의선62 ▲이건리85
▲이경민80 ▲이경환79 ▲이광렬70
▲이동복63 ▲이미현83 ▲이민찬61
▲이병기75 ▲이상덕74 ▲이상환82
▲이선희88 ▲이영수57 ▲이우영94
▲이원재65 ▲이일우64 ▲이재덕86
▲이재제51 ▲이태수89 ▲이해석61
▲이현영89 ▲이흥훈69 ▲임성권83
▲임철홍67 ▲장준혁91 ▲장태규80
▲장형훈58 ▲정기수66 ▲정상식91
▲정영성73 ▲정의중86 ▲정재석55
▲정주택71 ▲정진영64 ▲정태용99
▲정현국60 ▲정현수79 ▲정호영70
▲조경대55 ▲조관기61 ▲조대환80
▲조성욱85 ▲조용무64 ▲조원일68
▲조종현55 ▲조현수82 ▲지성우70
▲차상필68 ▲차중호57 ▲최규범65
▲최성락69 ▲최영덕69 ▲최정덕65
▲최창호88 ▲한용기62 ▲한이봉87
▲한정환87 ▲한민식64 ▲허만조68
▲황보중78 ▲황선당58 ▲황영욱63
▲황의인78

◇師範大學

▲강경돈77 ▲강성주90 ▲구본식74
▲구영주76 ▲권 규65 ▲권오현75
▲권유상58 ▲김 인78 ▲김경수64
▲김경자75 ▲김경희87 ▲김광숙69
▲김광운77 ▲김광인75 ▲김기숙68
▲김기우80 ▲김길중52 ▲김덕기61
▲김덕호73 ▲김삼순40 ▲김상대60
▲김상일65 ▲김석구50 ▲김성곤53
▲김성룡83 ▲김세경58 ▲김수진64
▲김순애40 ▲김승백60 ▲김연주89

▲김영국71 ▲김영국73 ▲김영의53
▲김영자63 ▲김예기58 ▲김용광73
▲김원규79 ▲김인중76 ▲김재운57
▲김종석55 ▲김종욱58 ▲김종원65
▲김준호55 ▲김진후78 ▲김철진75
▲김태완71 ▲김현진95 ▲김해경52
▲김홍기67 ▲김홍수43 ▲남규욱43
▲노은옥92 ▲노재영95 ▲문기웅98
▲문성식59 ▲민홍규56 ▲박 재44
▲박규홍73 ▲박영목70 ▲박용수75
▲박재근65 ▲박정현76 ▲박희웅69
▲방정애60 ▲변정수89 ▲서덕현76
▲서부원57 ▲서인경56 ▲서재형92
▲성경제56 ▲성기현67 ▲성수일56
▲성영주71 ▲성철용60 ▲성희길40
▲손수일55 ▲손영재88 ▲손종국59
▲송동수71 ▲송재식56 ▲송정실71
▲신 훈71 ▲신광근72 ▲신영애58
▲신용수57 ▲신정선60 ▲신호철63
▲신홍근57 ▲심상범64 ▲안영숙56
▲안정화59 ▲안중배85 ▲양국성27
▲양승학69 ▲양태정66 ▲오진순87
▲우성기61 ▲원인순89 ▲위종진95
▲유관상76 ▲유재경82 ▲유희일68
▲윤경태83 ▲윤성대71 ▲윤원강68
▲윤은숙61 ▲이강섭73 ▲이경숙55
▲이경희41 ▲이계숙50 ▲이규석73
▲이기원67 ▲이기화67 ▲이길오77
▲이대규61 ▲이대욱77 ▲이동근69
▲이두현50 ▲이명근87 ▲이미숙85
▲이범중82 ▲이봉기74 ▲이상운77
▲이상용77 ▲이순권66 ▲이승원77
▲이승우62 ▲이승우66 ▲이승이97
▲이에주69 ▲이영배44 ▲이영자60
▲이우덕71 ▲이용훈62 ▲이우진57
▲이준숙44 ▲이정록74 ▲이정숙73
▲이정욱62 ▲이종명58 ▲이종희40
▲이주한57 ▲이창국64 ▲이태웅75
▲이태준53 ▲이한규70 ▲이현택57
▲이형근84 ▲이혜성80 ▲이흥식76
▲이흥자74 ▲임부철86 ▲임수진88
▲임익구57 ▲장명숙72 ▲장봉의32
▲장준호56 ▲전동수62 ▲정강주74
▲정대영57 ▲정두영64 ▲정두용64
▲정복임64 ▲정부길64 ▲정순영60
▲정준섭65 ▲정창오85 ▲정하진91
▲조계석69 ▲조봉자40 ▲조성영91
▲조정일62 ▲조태주77 ▲조희식58
▲주용규54 ▲주학선62 ▲지은숙73
▲진영일65 ▲채미영86 ▲최 현59
▲최기숙60 ▲최남신55 ▲최병록57
▲최병호61 ▲최재진60 ▲최정현68
▲추병수88 ▲탁동근58 ▲하병권57
▲한기선78 ▲한기연49 ▲한정식59
▲한천옥75 ▲한홍승60 ▲호정희44
▲황경화57 ▲황금연54 ▲황남택68
▲황상익63 ▲황옥연63

◇商科大學

▲강두순46 ▲강상기57 ▲강성원70
▲강창준50 ▲고을상56 ▲공광우55
▲김 동71 ▲김 욱65 ▲김기휘70
▲김동희48 ▲김무홍74 ▲김문수68
▲김범수61 ▲김송자63 ▲김승경59
▲김영무62 ▲김용은57 ▲김용일72
▲김재진60 ▲김재진72 ▲김재호56
▲김제심56 ▲김종순52 ▲김종찬63
▲김진화65 ▲김진홍56 ▲김창달57
▲김창부65 ▲김홍배67 ▲나준현58
▲문동준61 ▲문영지59 ▲박경수64
▲박경철51 ▲박상배71 ▲박상효68
▲박세진68 ▲박영대60 ▲박원규62
▲박인석56 ▲박종민72 ▲박종후59
▲박태일66 ▲박태호75 ▲박한수57
▲배선홍49 ▲배진성64 ▲백 철61

▲북한채55 ▲서광옥57 ▲서기원50
▲서영택62 ▲석종장65 ▲성기학70
▲성덕경72 ▲성백규55 ▲손내선61
▲손성철59 ▲송무희65 ▲송인구63
▲송인기71 ▲송필호72 ▲신기범67
▲신문철55 ▲신영일65 ▲신위철49
▲신직성57 ▲심남진53 ▲안기수57
▲안홍지65 ▲양한수58 ▲엄도명67
▲연제성60 ▲오기화63 ▲오용규74
▲원영춘66 ▲유경현62 ▲유동운71
▲유시영67 ▲유희선70 ▲윤명상71
▲윤영흥62 ▲이국희62 ▲이대우77
▲이런기65 ▲이성위65 ▲이승균60
▲이영상55 ▲이영호69 ▲이웅근55
▲이장호69 ▲이재동57 ▲이정규49
▲이중희52 ▲이현철72 ▲이호성74
▲이홍근74 ▲임석현49 ▲장기호74
▲장병수67 ▲전복규60 ▲정상용68
▲정용호70 ▲정인복48 ▲정진홍49
▲정한성74 ▲정호용55 ▲조상규64
▲조영식57 ▲조재환76 ▲채규대60
▲채서일73 ▲최대환66 ▲최부원60
▲하국환51 ▲하기주65 ▲한 환55
▲한상현45 ▲한희영54 ▲함기창63
▲허병우70 ▲허재원60 ▲현호경51

◇獸醫科大學

▲강부현76 ▲고익식60 ▲곽기종61
▲구용회55 ▲권혁룡65 ▲김 두80
▲김남홍64 ▲김대중85 ▲김두명55
▲김영주92 ▲김영진83 ▲김재하55
▲김종면55 ▲김주성58 ▲김준삼59
▲김찬수81 ▲류광모60 ▲박노국68
▲박만규54 ▲박봉균80 ▲박희춘70
▲변훈달55 ▲석오봉67 ▲안석길55
▲우창현79 ▲윤석정71 ▲윤희정83
▲이상우69 ▲이종덕62 ▲이충범69
▲임옥빈60 ▲전원표63 ▲장태석68
▲조수식56 ▲채찬희87 ▲최광수64
▲최명근58 ▲최병일65 ▲최수호79
▲허정희66 ▲홍두표59 ▲홍성민70
▲황성수79

◇藥學大學

▲공현표74 ▲김경호79 ▲김기술75
▲김병근57 ▲김양배62 ▲김영호52
▲김정수62 ▲김진기99 ▲김홍숙77
▲남기동68 ▲노일협48 ▲마상환70
▲민신홍64 ▲박문기51 ▲방창학49
▲배옥남99 ▲변은자55 ▲서광수68
▲신복영76 ▲신정균59 ▲심상혁49
▲양태선71 ▲엄문경89 ▲엄주오57
▲오영자59 ▲이광식70 ▲이규송57
▲이명걸68 ▲이서운57 ▲이석만62
▲이용화66 ▲이재양57 ▲이재원67
▲이종성43 ▲이주형71 ▲이준행49
▲이홍래55 ▲임중기50 ▲전유학60
▲전정숙61 ▲전하창71 ▲조중현72
▲조지웅59 ▲채계화55 ▲전길순55
▲한복영49 ▲홍순철64 ▲홍순태71
▲황광진89

◇音樂大學

▲강덕원73 ▲강진구75 ▲공정원96
▲구본희72 ▲김동우78 ▲김명서70
▲김민자70 ▲김석란84 ▲김성남51
▲김영봉87 ▲김영식74 ▲김오경79
▲김원식56 ▲김은옥90 ▲김인옥81
▲김태정90 ▲김혜숙69 ▲노영해72
▲목완수77 ▲박관희88 ▲박산하88
▲박정배67 ▲박정임73 ▲방영호84
▲서순정64 ▲서정실75 ▲송주병84
▲신정화91 ▲심선화76 ▲안종덕88
▲엄진섭82 ▲오유애80 ▲유현아85
▲윤선애74 ▲윤혜원85 ▲이건희86

▲이경희67 ▲이경희80 ▲이대구76
▲이소정60 ▲이승현91 ▲이오규79
▲이종길90 ▲이판준72 ▲임평룡76
▲장혜실73 ▲전혜옥79 ▲정미현90
▲정화지64 ▲조 양73 ▲조명희69
▲조은희69 ▲차광해67 ▲차세정99
▲최 충56 ▲최구해65 ▲최수연89
▲최정은98 ▲최조웅63 ▲최중원80
▲최해명72 ▲한정열95 ▲홍부자64
▲홍순덕77

◇醫科大學

▲강병철91 ▲강수경88 ▲강영진89
▲고영박70 ▲권영길55 ▲권준수84
▲권희정81 ▲김경일82 ▲김구상82
▲김기락76 ▲김길남75 ▲김동수83
▲김득구56 ▲김법성84 ▲김병국70
▲김선원62 ▲김인구71 ▲김재승89
▲김준성91 ▲김진국58 ▲김진혁84
▲김창욱78 ▲김학순80 ▲김현철84
▲김환규78 ▲김희섭46 ▲류희철88
▲민학진84 ▲민현기51 ▲박기하54
▲박기하54 ▲박신재58 ▲박성호79
▲박숙현50 ▲박영일50 ▲박용섭55
▲박재덕41 ▲박재교45 ▲박종화81
▲박중신89 ▲변중훈75 ▲소순호84
▲신기철75 ▲신선교56 ▲신희섭74
▲염명걸81 ▲오준호51 ▲원경란90
▲유세화71 ▲유언호60 ▲유영해48
▲윤광선75 ▲윤대영76 ▲윤병철84
▲이명복39 ▲이봉하55 ▲이봉하55
▲이상준66 ▲이석환59 ▲이언복58
▲이원석87 ▲이재원82 ▲이정수80
▲이철호79 ▲이춘배89 ▲이해영75
▲이홍근63 ▲장명훈84 ▲장일석76
▲전경호59 ▲전규식56 ▲전병훈52
▲정구현48 ▲정동진76 ▲정요한57
▲정용화62 ▲정용남58 ▲정해철80
▲정홍근88 ▲조미경66 ▲조한익67
▲조환구50 ▲주 식69 ▲지석봉81
▲최석훈53 ▲최성준89 ▲최일형51
▲한석상58 ▲한천석41 ▲함창곡67
▲홍성환82 ▲홍순찬82

◇齒科大學

▲강봉기75 ▲강우태66 ▲강인희83
▲고성희79 ▲구기서63 ▲권순배66
▲권오균63 ▲금창현87 ▲김규진81
▲김명영81 ▲김봉구84 ▲김신복65
▲김영호62 ▲김영훈60 ▲김용철70
▲김우철75 ▲김유진83 ▲김의배56
▲김인수96 ▲김지수89 ▲김진규62
▲김창우66 ▲김창희68 ▲김현규70
▲김화봉63 ▲김휘철63 ▲김희준78
▲문일환71 ▲박영길70 ▲박원기89
▲박은경89 ▲백기석70 ▲변기정71
▲손화진71 ▲송광수66 ▲송세진64
▲송채현81 ▲신일영83 ▲심대섭59
▲양수정69 ▲양재영76 ▲오성근55
▲우건희73 ▲윤영수88 ▲이교인72
▲이기송60 ▲이만희89 ▲이상재81
▲이상현87 ▲이상출76 ▲이영욱84
▲이영종84 ▲이의웅65 ▲이장호81
▲이정호84 ▲이진규84 ▲이철민85
▲이철용77 ▲이혜자83 ▲임병서45
▲임성삼62 ▲임찬용66 ▲장문성89
▲정만영58 ▲정운호84 ▲차영남73
▲채영제55 ▲최기진47 ▲최종호74
▲한기완73 ▲한성동57 ▲홍금표58
▲황성명55 ▲황영구78

◇大學院

▲고재홍84 ▲권효숙94 ▲김경환92
▲김동현94 ▲김문한82 ▲김병희85
▲김봉환85 ▲김성택87 ▲김창남83

▲김택일67 ▲김형국67 ▲류창교92
▲모수미75 ▲문희수64 ▲박영환85
▲박종렬71 ▲배명진83 ▲백대균82
▲송윤경98 ▲안수영86 ▲안영섭76
▲오복자94 ▲왕인근58 ▲윤해준98
▲이기조89 ▲이남형73 ▲이범구82
▲이용목78 ▲정목동83 ▲정삼채86
▲조찬성75 ▲조현래75 ▲조형인87
▲주형돈57 ▲최 일72 ▲최영희79
▲하세기96 ▲한찬욱87 ▲홍정수95
▲황성환90

◇經營大學院

▲김일란70 ▲김태영96 ▲박영희96
▲양관후72 ▲유태현75 ▲이진원69
▲이풍호71 ▲이효정94 ▲장만기68

◇敎育大學院

▲김기태71 ▲박광희66 ▲우정남75
▲이해방72 ▲장무익73 ▲정병관69
▲최홍규68 ▲황현익65

◇保健大學院

▲김경숙79 ▲김성초76 ▲김유정99
▲김정만77 ▲김종만64 ▲김종서61
▲맹석재79 ▲문성환88 ▲박덕성77
▲박승기84 ▲박일영82 ▲박종안72
▲박형언80 ▲오정수91 ▲이경연73
▲이광식77 ▲이상훈82 ▲이송권73
▲이용성73 ▲이태희80 ▲이한구72
▲정현주81 ▲최 용80 ▲최상순73
▲홍수정68

◇司法大學院

▲송정호68 ▲황상현69

◇新聞大學院

▲김이환75 ▲노재성73 ▲엄정식71
▲오인태69 ▲유일연75 ▲유종일74
▲이준우75 ▲최성봉73 ▲황우권72

◇行政大學院

▲김구현66 ▲김준봉65 ▲노선호68
▲박성환66 ▲송태준78 ▲윤영일84
▲이상하87 ▲홍석철64

◇環境大學院

▲강병수64 ▲김수철78 ▲김진훈87
▲김진훈87 ▲김형복89 ▲김해전80
▲노윤경88 ▲민봉기83 ▲송호기91
▲유덕률87 ▲유춘수85 ▲이광희87
▲임상진87 ▲임재민82 ▲전상훈86
▲정영선75 ▲최주섭75

◇최고산업전라과정

▲강신철14 ▲강형자24 ▲고영학18
▲권철언23 ▲김경호23 ▲김동권1
▲김동섭6 ▲김성철14 ▲김순택6
▲김영상7 ▲김영수3 ▲김재기16
▲김정영21 ▲김주현22 ▲김창희19
▲김후관17 ▲노의현21 ▲박양진20
▲박영배23 ▲박영재17 ▲박희수11
▲변을호18 ▲서원진20 ▲손성문20
▲송준일13 ▲신성기14 ▲신정식13
▲오세희2 ▲오원근12 ▲육남선6
▲이강덕17 ▲이기종13 ▲이명래19
▲이복근12 ▲이신언7 ▲이왕열7
▲이원해15 ▲이현영8 ▲임봉순16
▲정운길9 ▲정유원18 ▲차동성2
▲차수환23 ▲최길순21 ▲최비호21
▲황기인10

◇국가정책과정

▲가겸노39 ▲권영배40 ▲김경래18
▲김경수4 ▲김동권1 ▲김부근91

▲김석환90 ▲김성정49 ▲김장환49
▲김호연11 ▲김홍원55 ▲노영철48
▲노재우16 ▲노희식88 ▲박성득20
▲서찬교40 ▲손정식44 ▲신옥수87
▲안영철39 ▲안준태43 ▲안홍열48
▲오필기2 ▲원성희40 ▲유길종12
▲이은홍48 ▲이정익34 ▲이정주47
▲이출선51 ▲임 철42 ▲전해성33
▲정시제9 ▲정희진47 ▲조옥식16
▲조진형66 ▲최병길11 ▲최수근61
▲최익한5 ▲최창현55 ▲허화홍28

◇고급금융과정

▲곽동준11 ▲김남석9 ▲김윤태15
▲류광하7 ▲문형구7 ▲서승원3
▲신상민4 ▲심충식3 ▲오대욱11
▲이대근12 ▲이상호2 ▲이창식12
▲임경상9 ▲장지인10 ▲정환수15
▲조영천1 ▲허윤도1 ▲황선권4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김경환4 ▲김능기5 ▲김만수5
▲김수근2 ▲김수길1 ▲김영근6
▲김원길1 ▲김종호4 ▲김진모3
▲박남식2 ▲박종길6 ▲박종인5
▲박춘선5 ▲서선호4 ▲서장영5
▲유장식6 ▲이상빈6 ▲이영길3
▲이익진2 ▲이점수6 ▲이현정3
▲임득현6 ▲장진숙5 ▲정강희1
▲정종환3 ▲정해돈5 ▲조백일6
▲차원갑5 ▲전정근6 ▲황용연2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경은호3 ▲권차남5 ▲김광태2

▲김길섭7 ▲김동관6 ▲김상진6
▲김성한1 ▲김영호7 ▲김윤희1
▲김종만1 ▲김종성7 ▲라석찬7
▲류희근4 ▲박 윤4 ▲박성각5
▲박수성3 ▲박승언6 ▲박효배1
▲박희두7 ▲방금석2 ▲서윤석5
▲선덕남4 ▲손재립6 ▲송정순3
▲양명생1 ▲염송옥4 ▲유 형2
▲윤상복6 ▲이공순5 ▲이상택2
▲이을석7 ▲이주국2 ▲이창호7
▲이철희4 ▲이태수6 ▲이항범2
▲장성호6 ▲전명덕1 ▲전상배3
▲정금주2 ▲정인화1 ▲정재규2
▲정홍수7 ▲조동섭4 ▲조영숙5
▲조현식7 ▲주영진2 ▲최재영2
▲최주채2 ▲허준평3 ▲홍승혁7
▲황영희2 ▲황영희2 ▲황학순1

◇해양정책최고과정

▲김종현1 ▲이신복1 ▲장성호1

지부분담금

◇태국지부 : 509,788원

◇인도네시아지부 : 549,600원

합계 : 89,059,388원
통계 : 390,829,808원

<지면관계로 최고경영자과정, 공
기업고급경영자과정, 가정간호수
습과정 회비 납부하신 분은 다음
호에 게재>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1년 6월 발급 회원 명단)

개 인

◇人文大學

▲기성식87 ▲배노필97 ▲안도현93
▲양지훈99 ▲육영채89 ▲이학선93
▲조만성98 ▲채경희92

◇社會科學大學

▲김용운95 ▲김지근99 ▲안평식93
▲윤영태89 ▲이정식85 ▲이주환97
▲이희형91 ▲임경록96 ▲전영재87

◇自然科學大學

▲김호신83 ▲노진철93 ▲이주형95
▲이한복90

◇看護大學

▲계성희84

◇經營大學

▲박세락94 ▲박주양83 ▲안수용90
▲이명길93 ▲이상만78 ▲정철윤90
▲홍강식97

◇工科大學

▲강주형96 ▲권영관99 ▲김용성91
▲김홍규98 ▲박상재88 ▲박호경74
▲배유석93 ▲손병철97 ▲우정민95
▲이교성81 ▲이두호95 ▲이성민93
▲정진태84 ▲한상진90

◇農科大學

▲고재덕99 ▲김경희96 ▲김기범88
▲민병록93 ▲오현승91 ▲유경희88
▲이봉성94 ▲임현호95 ▲임희준88

▲정주영94 ▲최주영95

◇文理科大學

▲김판금70 ▲최상규67

◇美術大學

▲안기환97

◇法科大學

▲김홍철90 ▲배상윤88 ▲이준식86

◇師範大學

▲곽병우90 ▲김규만77 ▲김방준97
▲김상욱93 ▲박상철92 ▲이계학82
▲정윤미67 ▲최광호

◇藥學大學

▲김희경86

◇音樂大學

▲고현선96 ▲최애나90 ▲한정희88

◇醫科大學

▲최성배81

◇齒科大學

▲김태우98 ▲석광덕75

◇大學院

▲조일구96

◇環境大學院

▲임재민92

◇최고경영자과정

▲권기술9 ▲서석해90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 주소

www.snua.or.kr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20만 동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COMMUNITY

분야별 토론장
커뮤니티 서비스
동문기업서비스
동문관련사이트
자료실
엔터테인먼트(바둑)
동문찾기

ALUMNI

모교정보
모교병원
동창회보
엔젤클럽
동창회소개
동창회사업
조직 및 지부
재미동창회

MY HOME

나의 이력서
지원업체현황
맞춤채용정보
나의 북마크
이력서열람
동영상 자기소개서
화상면접

저희 홈페이지는 주기적인 업그레이드와 동문여러분에게 방문의미와 재미를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02)702-2233 총동창회 사무실 또는 www.snua.or.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대학, 학문의 대학인 모교에서 국제사회를 활동무대로 삼아야 할 우리의 후배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비조달을 위해 생활전선에서 뛰고, 그것도 어려워 휴학 또는 조기 군입대로 자발적의 기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는 일반장학제도 외에 장학사업의 확충과 수혜 대상폭의 확대를 위해 「特志獎學會」제도를 운영하여 장차 이 사회의 동량이 될 후배들을 키우기 위한 장학금 지급과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지장학금 제도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장학재단인 「재단법인 관악회」 산하에 개인, 법인, 단체 등의 기부와 출연(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현물) 또는 유증, 증여, 상속에 의해 출연자 명의의 특지장학회를 설립·운영하여 출연자 명의로 모교재학생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처 안내

TEL 02) 702-2233 FAX 02) 703-0755

平生 한번 모교발전과 동창회 결속 및 활성화를 위한 회비납부

동창회비는

- 후배들의 장학사업
- 동문 사회의 가교 역할을 위한 동창회보 발행
- 동문 결속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 모교 각종 지원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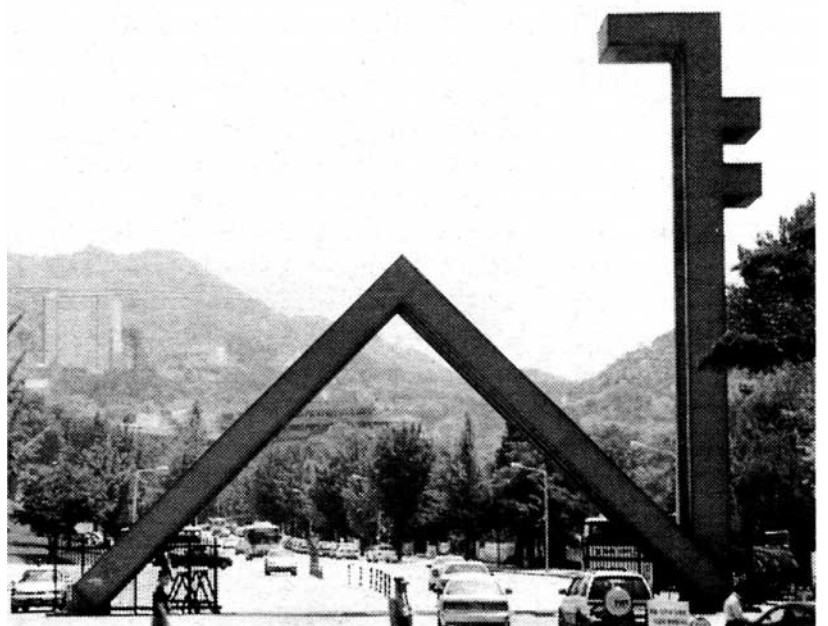
마음은 있지만 번거로운 연회비를 평생 한번 납부로 잊어버리세요.

	연 회 비	평생 회비 (일반회비 10배)
일반회비	20,000원	200,000원

- 동창회보(매월)·포켓용 다이어리(11월중)를 평생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문 음악가의 기념 음반(CD)을 보내 드립니다.(8월중 발송)
- 동창회 관련 안내를 직접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 「조흥은행 397-03-002804」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계좌로 ON-LINE 입금하 시거나, 동창회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GIRO 통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입금후에는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안내는 02) 702-2233 총동창회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의 소리

평화적 통일위해 힘 모았으면...

朴完信(79년 行大院卒)관동대 북한학과 교수·북한사회과학연구원장



통일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국가와 민족뿐만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열정을 다 바칠 계획이며, 우리 동문 모두도 민족의 평화적 통일 사역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부각시켜 민족에게
소망의 빛을 심어주고파
”

1977년 3월 공직에서 사무관으로 봉직하고 있을 때, 모교 행정대학원에 지원하여 합격한 것이 북한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조그마한 힘이나마 민족의 평화적인 통일사역을 위해 기여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최초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략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타 대학원에서 「북한 관료체제와 행태에 관한 연구」

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북한행정론」, 「신북한학」, 「북한의 경제와 경영」, 「북한종교와 선교통일론」, 「금강산에 매아리친 통일의 노래(시집)」 등 20여 권의 북한학에 관한 책을 발간했는데 각 대학의 북한학과 또는 북한학 과목이 개설된 대학 및 대학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다.

본인은 현재 북한학과 교수로서 후학들에게 북한학 및 민족

통일론 등을 강의하며 앞으로 통일에 관한 비전과 열정을 갖고, 통일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군기관은 물론, 기업체, 종교 및 사회단체에서 북한 및 통일문제에 관한 강연을 통해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부각시켜 민족에게 소망의 빛을 심어주는 역할도 아울러 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학 및

의사 선생님과 의사 도둑놈(?)

朴明河(85년 師大卒)월정의원 원장



물론 어느 집단이든 소수의 비윤리적인 구성원이 있을 수 있으며, 의사 사회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의사 도둑놈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는 국민들은 얼마나 불행한가? 최고의 윤리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의 명예를 짓밟아서 과연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의사 도둑놈 아닌 의사 선생님이로 다가설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
개원 초기에는 박사님,
선생님 소리를 들었는데
아저씨라 부르는 사람이
생기더니 요즘은
환자들의 눈초리가 마치
도둑놈 보는 듯하다
”

요즘은 사장님처럼 선생님이 라는 호칭도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어쨌든 선생님이라는 뜻은 스승, 교원 또는 나이나 학식이 높아 존경할 만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존경의 의미에서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는 것일 것이다.

필자는 확실히(?) 의사 선생님이다. 의사로서의 학식이 높아서가 아니라 1985년에 모교 사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교직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고, 1993년에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 자격증이 있으니 자격증만 따져서는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라 할 만하

다. 개원 초기에는 박사님, 선생님 소리를 들었는데 아저씨라 부르는 사람이 생기더니 요즘은 환자들의 눈초리가 마치 도둑놈 보는 듯하다.

얼마전 전 국민에게 수진내역을 확인한 후의 일이다. 환자가 웃으며 하는 말, 『원장님은 정직하시던데요』 그냥 웃고 말았지만 그 씁쓸한 뒷맛은 오랜 동안 잊혀지지 않는다. 다른 병원에서는 곤욕을 치른 모양이다. 환자의 부정확한 기입으로 오해가 생긴 경우도 있을 것이다. 2~3개월 전 어느 병원에 몇 번 가서 얼마를 지불했는지 환자에게 정확히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싶다. 더구나 이런 일에 보상금까지 지불하니 할 말

이 없을 뿐이다. 의사를 도둑놈으로 모는 것은 언론의 힘이 크다. 진료비를 청구할 때 전산실수나 심사평가원의 자체 규정에 의한 정당한 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 삭감까지도 모두 의사의 부당 청구라 하는 일이 그것이다. 70세 할머니가 애를 낳고, 산모가 일주일만에 또 출산하고, 죽은 사람 진료했다는 등 해외토픽이나 나올 법한 일을 마치 의사가 고의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먹기 위해 저지른 것처럼 보도하는 일이다. 그 속사정을 보면 진료비 청구 과정의 전산입력 실수이거나 환자가 고의로 돌아가신 분의 이름으로 진료 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말이다.

휴가만큼은 왕처럼 보내자

蔡耕玉(90년 經營大卒)매일경제신문 사회1부 기자



여행지가 있을까. 요즘 들어서는 여름 휴가 때도 남자들끼리 골프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름휴가는 본인에게도 소중한 시간이지만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온전히 가족끼리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리고 조금만 준비한다면(피곤하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말자) 무기력과 짜증으로 점철된 시간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수 있다.

“
여행 중에
꼭 찾아봐야 할 장소,
꼭 해봐야 할 경험,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등도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
”

바야흐로 본격적인 휴가철이다. 한국의 셀러리맨들에게 있어서 여름 휴가는 1년 동안의 고된 격무 끝에 얻는 달콤한 휴식이다. 외국처럼 연간 30~40일씩 휴가가 있어 맘 내키는 대로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하루 쉬려고 해도 이 눈치, 저 눈치 다 봐야 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달랑 4~5일(길어봐야 6~7일)이긴 하지만 「휴가」라는 단어가 주는 설렘은 유난하다.

나름대로 휴가를 보내는 철학이 있고 방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직장인들(대부분은 집안의 가장)은 너무 무계획적이고, 무성의하게 휴가를

보내는 것 같다. 내가 아는 선배 중에 「휴가만큼은 왕과 왕비처럼 보내자」라는 철학을 가진 분이 있다. 그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올 여름휴가가 끝나면 바로 내년 여름휴가 준비에 들어간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여행지를 정하고 나면 1년 동안 틈틈이, 짬짬이 가뭏일을 해서라도 휴가비를 모은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여행하며, 호텔이며, 항공사며 전화를 걸어 비교적 저렴하게, 그러나 패키지 상품보다는 훨씬 우아하고 편하게 여행할 방법을 찾는다. 여행 중에 꼭 찾아봐야 할 장소, 꼭 해 봐야 할 경험,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등등도 그는 꼼꼼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

요즘 4인 가족이 패키지를 가면 아주 가까운 동남아라고 해도 최소한 3백만 원 이상이 든다. 이 돈을 주고도 그만그만한 호텔에 묵으면서 가이드가 정해준 음식만 꾸역꾸역 먹으며 다 리 아프게 관광지만 뱅뱅 돌다가 돌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선배는 같은 돈을 들고도 최고급 호텔에서, 먹고 싶은 음식 골라먹으며,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그런 휴가를 보낸다.

국내 여행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적당한 곳에 콘도만 얻으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가장들이 적지 않은데, 사실 그 아내에게 있어서는 콘도만큼 피곤하고 고달픈